



30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사우디아라비아 대 대한민국의 경기, 후반 대한민국 조규성이 동점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무등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11년 연속' 선정

문체부 지방위 전국 68개 언론사 뽑아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SRB미디어그룹 무등 일보가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문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무등일보는 지난 2006년 이후 14차례 우선지원대상사로 뽑혔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최근 지역일간지·주간지 대상 '2024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를 심사한 결과, 무등일보를 비롯해 일간지 27개사·주간지 41개사 등 총 68개사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확정했다.

우선지원대상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기획·제작·취재·판매·광고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무등일보는 올해도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 정론지로 새로운 뉴스 콘텐츠 발굴과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온 물론 다양한 이슈 개발 등을 통해 여론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우선지원대상사 명단.

◆일간지 27사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

매일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남일보 ▲광

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

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

부일보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주간지 41사 ▲강진우리신문 ▲거제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성신문 ▲고양신문

▲고창신문 ▲광양만신문 ▲광양신문 ▲김포신

문 ▲남해시대 ▲남주신문 ▲뉴스서천 ▲담양

곡성타임스 ▲담양군민신문 ▲당진뉴스 ▲당진

자치신문 ▲당진시대, 당진신문 ▲목포시민신

문 ▲무주신문 ▲보은사람들 ▲서귀포신문 ▲

설악신문 ▲성주신문 ▲영암신문 ▲영주시민

신문 ▲울산저널 ▲원주투데이 ▲은평시민신

문 ▲주간함양 ▲진안신문 ▲청양신문 ▲춘천

사람들 ▲태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한산신

문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홍성신문 ▲

홍주신문

한경국기자 hkk42@mdiblo.com

조·조, 넣고 막고… 클린스만호 8강 진출

<구성>

<현우>

아시안컵 16강전 동점골·선방쇼
승부차기 혈투 끝 사우디 꺾어
3일 인니 누른 호주와 한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

클린스만호는 31일 오전 1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와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조규성(미트월란)의 극적 동점골에 힘입어 정규시간을 1-1로 비긴 뒤, 연장전 이후 진행한 승부차기에서 펼쳐진 조현우(울산 HD)의 선방쇼로 다음라운드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를 꺾은 호주를 8강에서 만난다. 오는 3일 0시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최정예 멤버와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다. 부임 이후부터 조별리그까지 백포 전술을 썼으나, 이날 경기에서는 백스리 전술을 선택했다. 즉면 공격이 강한 사우디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공격에 정우영(슈트트가르트), 손흥민(토트

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리했고, 중원에는 설영우(울산 HD),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즈베즈다), 김태환(전북현대)이 배치됐다.

백스리에는 김영권(울산),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정승현(울산)이 출전했으며,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

양 팀 모두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펼쳤다. 수비적 인 백스리 전술을 사용,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비슷한 점유율로 중원에서 상대 뒷공간을 노렸다.

한국은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넘겨준 공을 손흥민이 터치 후 박스 안으로 침투,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사우디는 전반 29분 역습 상황에서 골 찬스를 맞았다. 살렘 알도사리가 살레 알세흐리에게 패스를 시도, 공을 받은 알세흐리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영점이 정확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41분 큰 위기를 맞았다. 코너킥에서 알라자미, 알세흐리가 연속으로 슈팅했으나 모두 골대에 맞았다.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슈팅은 김민재가 막았다.

사우디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에 성공했다. 후반 1분 알도사리의 패스를 받은 암둘라 라디프가 원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한국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후반 9분 정우영을 대신해 황희찬(울버햄튼)을 투입했다. 후반 19분에는 정승현, 이재성

을 빼고 박용우(알아인), 조규성을 투입하며 다시 백포 전술로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경기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후반 54분 설영우의 패스를 조규성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시 선수 교체로 변화를 가져갔다. 연장 후반 11분 김민재를 빼고 박진섭(전북)을 투입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노렸지만 사우디의 골망은 열리지 않았다. 연장 후반 33분에 라디프가 골키퍼와 단독 찬스를 맞았으나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연장전까지 골을 넣지 못한 양 팀의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승부차기는 사우디의 선축으로 시작됐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모하메드 칸노가 득점에 성공했고, 한국에서는 손흥민이 첫 번째로 나서 골을 기록했다.

사우디, 한국 모두 두 번째 키커들도 득점했다. 사우드 암둘하미드와 김영권이 웃었다.

하지만 세 번째 키커에서 회비가 갈렸다. 사미 알나헤이의 슈팅이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반면 한국의 조규성은 득점 후 포효했다.

사우디의 네 번째 키커인 암둘라흐만 가리브도 조현우를 넘지 못했다. 이어 페널티킥을 시도한 황희찬이 성공,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로

종합계획 수립…센터·놀이터 등 건립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광주시는 반려동물 공공기반 복지시설 조성 등 동물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2023~2027 반려동물 친화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광주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정책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팀을 신설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놀이터, 공동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에 나선다.

노후특별계획도시 확대 → 1면에서 계속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는 상무·하남·문흥·일곡·포암·운남지구가 대상이다. 또 광주시는 금호지구가 특별법 대상이 되는지 파악 중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 하당지구와 여수 문수·여서지구, 순천 조례지구, 연향·금당지구가 대상이다.

각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재건축)에 돌입하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서강대학교
서명대학교 서강고등학교 서강중학교 서명유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www.seoyeong.ac.kr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1(운암동)

서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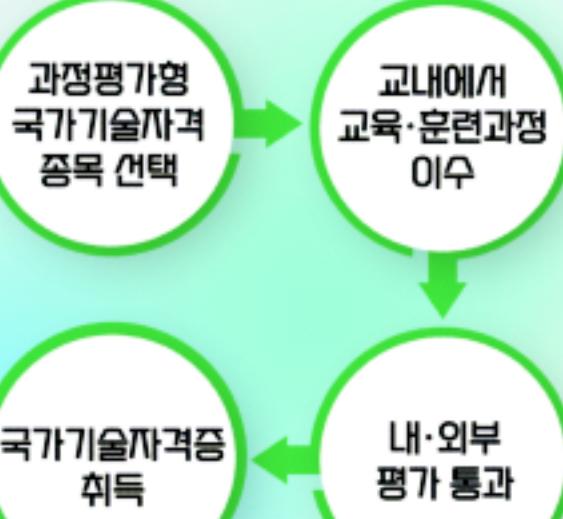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교육기관

미용사(헤어·피부) 종목

뷰티미용과

2023년 재학생 응시자
미용사(헤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10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종목

A이미래자동차과

2023년 재학생 응시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96%

서영대학교
SEOYEONG UNIVERSITY

“선거 반드시 승리 1당 151석… 검사 독재 청산”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尹 정부 비판 총선 결집 호소
선대위 통합… 선거제 고심 중
“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폭주 막고 죽임의 정치 끝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4·10 총선에 대해 “운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이고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며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

기에 맞춰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 역할을 집행 권한이 없기에 본질적으로 여당 견제가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운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라고 4월 총선을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화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같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에 대해선 “중도라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간쯤 어정쩡한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내는 정책,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등 이런 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이다”며 “이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꿔주겠다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중도층이라 불리는 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경쟁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며 “다만 그게 불합리한 갈등이나, 불가피한 갈등이니라는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선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 위에 국민들에게 적극 설득하고 동의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 생각 다름이 전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하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병문기자 bwj2388@md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현수막 난립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17개 시·도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에 나선 가운데 31일 광주 도심 대로변에 각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영우기자 jo6605@mdilbo.com

공천 앞 가열되는 네거티브에 ‘정책 실종’

경선 막바지 후보자간 흑색선전 난무
진흙탕 싸움에 유권자들 피로감 호소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 간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 간 흑색선전이 난무한 반면 정책은 실종돼 별씨부터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략선거구인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광주 7개, 전남 10개 등 17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4·10 총선 공천 후보 공모를 마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4일까지 5일간 후보자 면접에 들어가는 등 경선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

경선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지역 후보자들 간 네거티브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강진을 사랑하는 청년당원 일동’과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 흥강진)은 최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건으로 치열한 사설 공방을 벌였으며, ‘정의로운 나주 만들기 연대’라는 단체와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나주·화순에 출마하는 최용선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실 선임행정관 재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하기도 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은 “김원이는 하위 컷오프 대상이다. 김원이가 지방선거 당시 권리 당원명부를 유출했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고,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출마하는 박노원 예비후보는 자신을 경쟁한 사생활 등 허위사실을 기획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처럼 총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다.

강진군민 A(66)씨는 “지역민들은 차악보다 최선을 다하는 후보를 뽑고 싶은데 그런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시민 B(34·여)씨도 “지역의 후보자 중 누가 어떤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낼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적은데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심사가 바지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정책을 알리기보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줄세우기나 타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에 치중하는 것은 언제나 애용되던 예비후보자의 선거전략”이라면서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앞세운 정책 대결로 지역민들의 정치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jck4151@mdilbo.com

이준석·양향자 개혁신당, 광주서 표심 구애

군공항 이전 등 공약 3가지 발표
“표 신경 안쓰고 현안 건드릴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퇴발 광주를 찾아 “개인적으로 광주에 애착이 많다”면서 “지역에서 육 먹거나 분쟁 자체를 두려워해서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광주의 문제들을 과감하게 건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 정책을 홍보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의 광주 공약을 발표하는 등 광주 시민들에 대한 구애를 펼쳤다.



3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왼쪽부터)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이 대표는 “개혁신당에 광주와 전남에서 지역구 기반을 두고 있는 천 최고위원과 양 원내대표가 있는 만큼 호남 지역에 대한 이해만은 어느 정당보다 밀도 있고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개혁신당에서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 세 가지도 발표했다. 무안으로의 조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무등산 정상 개방 관련 전기버스·케이블카 설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이다.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 원내대표는 “가치와 비전을 같이 하려는 세력은 함께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논의는 개혁미래당의 2월 4일 창당 이후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 지역구 현역인 양 원내대표는 “설전에 이 대표의 동의를 구하고 출마 선언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사랑하고 서구을은 애증의 관계다”고 답했다. 수도권 출마 가능성은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현기자 foresight@mdilbo.com

국힘-전남도, ‘미래 에너지 신산업’ 논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협의
경쟁력 강화·미래 먹거리 확보 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31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전남도 에너지정책국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미래에너지 경쟁력 강화와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주요사업은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 유치 사업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사업으로 올해 전남 유치 확정을 위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개발, 초강력 레이저 신무기·부품·장비 국산화, 의료 레이저 원천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관련 기업 20개 유치, 고용 5천여명 창출, 약 1조 5천억원의 총생산 증대 효과와 함께 레이저 산업 국가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핵융합 선진국 위상 강화를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산업으로, 핵융합에너지와 인공태양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고급 인력 일자리 확대, 인구 유입, 3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종현기자 jck4151@mdilbo.com

광주 지방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개인 후원회 설치 절실” 토론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 후원회 설치가 절실히”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일동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한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했다”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지역정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된다.”

이재현기자 foresight@mdilbo.com

글로컬대 ‘선정 룰’ 확정… 올해 10곳 뽑는다

교육부 ‘지정계획’ 발표 사립배 배려
연합대 유형 신설·평가위원회도 안배

교육부가 올해 글로컬대학 1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통·폐합, 구조조정 등 혁신안을 심사해 5년간 국고 1천억원을 지급한다. 대학 행정기구 간 통합인 ‘연합대학’ 유형을 신설하고 평가 위원회를 국·사립 등 대학 유형에 따라 안배하는 등 지난해 사립대 출대론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31일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대구·광주·세종 등 권역별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글로컬대학은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 계획을 제출한 지방대를 지원하는 국고 사업이다. 5년 동안 국고 1천억원에 상당하는 국고를 지원하는데 과거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다.

올해 대학들은 지난해와 같은 통합형과 단독형 외에 ‘연합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작은 규모나 사립대가 불리할 수 있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업에

빛대면 두 대기업이 기존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기획조정본부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을 두고 대학 본부(행정본부) 간의 통합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연합대학은 꼭 사립·사립 조합이 아닌 국립·사립 조합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학들이 각자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단계 절차로 실시한다. 대학의 혁신 방향성을 개발하는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1차 예비지정 평가, 이후 대학이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10개교를 가리는 본지정 평가 순이다.

아울러 예비지정 평가 시 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해 본지정 대학이 국공립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사립대 총장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처로 여겨진다.

글로컬대학과 교육부는 오는 3월 2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뉴스

광주 찾는 축덕 느는데 주차 인프라 '미흡'

<축구덕후>

광주FC,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
월드컵경기장 관중 연 8만명 돌파
시설 노후화·공간 부족 민원 증가
마구잡이식 주차까지 개선 시급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는 등 K-리그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축구 경기 관람(직접관람)을 위해 흡구장을 찾는 축구 팬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광주 흡구장 주변 주차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도 20회가량의 흡경기가 예정된 만큼 축구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한다는 지적이 있다.

31일 광주FC와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축구전용구장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공용주차장 등 총 2천132면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컵점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용주차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컵점 주차장은 고객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어 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주말에는 대형마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변 도로 혼잡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 주차 자체가 어렵다.

반면 축구 경기 관람객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2만1천407명, 2022년 2만6천 425명으로 2만명대였던 누적 관중수는 지난해 8만6천9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한 경기당 평균 4천500여명의 관중이 모인 셈이다.

축구 관람객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 시즌 기간



최근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공영주차장. 노면의 주차선이 노후화돼 희미해진 모습.

대형마트 이용객과 주민, 관중 모두가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박모(57·여)씨는 "경기 시즌이 되면 마트에 차를 가져와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주차장을 몇바퀴 돌고 나서야 겨우 힘들게 주차하고 장을 본다"고 했다.

대구에서 광주로 원정 경기를 보려온 경험이 있는 김모(32)씨는 "경기를 보려 가기 전에 주차 관련 검색을 해봤다. 주차장은 넓지만 빨리 가야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3시간 전에 도착해 주차했다"며 "경기 시작 1시간 반 전쯤에 주차장을 확인해보니 자리가 다 차 있었다"고 말했다.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주차장과

공용주차장 등은 2002년 준공 이후 주차선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주차 선이 희미한 채 방치돼 있어 이용객들이 애를 먹고 있다.

승용차와 대형관광버스 등이 주차선과 관계 없이 들쭉날쭉 주정차돼 있다 보니 이용객들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진출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모(29)씨는 "광주FC 경기를 보러온 사람들은 롯데마트나 아울렛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쪽은 비교적 시설이 잘돼 있어 주차하기 좋지만 여기(광주축구전용구장)는 주차선이 없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해 공간이 낭비되고 진출입마저 어렵다"며 "흡경기를 보러 타지역에 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광주 이미지에도 영

향을 줄 것 같다.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FC 경기 관중이나 시민 등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용주차장의 상황도 비슷했다. 노후화되면서 노면에 그려져 있던 주차선이 희미하거나 지워졌고, 아스팔트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해당 시설들을 관리하는 광주시체육회 측은 "2002년 준공 이후 주차선을 보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난해 보수를 위한 예산을 광주시에 신청했지만 예산 감축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통해 일부 주차 공간은 보수 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승희 기자 wlog@mdibbo.com

'억대 사기' 전청조에 징역 15년

檢 "재벌3세 사칭 계획적 범행"

검찰이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 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청조는 재벌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이씨에 대해선 "전청조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정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씨 즉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속이고 억대의 돈을 편취한 전씨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전씨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뉴스

전남 119, 3.2분마다 출동

지난 한 해만 9만1천47명 이송

전남소방본부 119구급대가 2023년 한 해 16만5천448회 출동해 3.2분에 한 번꼴로 구급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송 건수는 8만9천325건 이송 인원은 9만1천47명이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2022년 7천692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건수는 1천65건으로 86.2% 줄고 자차이송 비율이 늘어난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2022년 7천692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건수는 1천65건으로 86.2% 줄고 자차이송 비율이 늘어난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년 출동(17만 434건), 이송 건수(9만 3천264건), 이송 인원(9만 5천588건)과 비교해 각각 2.9%(4천986건), 4.2%(3천939건), 4.8%(4천541명)이 줄어든 규모다.

'해외 도피' 최영환 전 시의원 1년8개월만 체포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개입한 혐의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선정에 개입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해외 도피 1년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이 S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뇌물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S 유치원 이모 원장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돋겼다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A 유치원 최모 원장에게 제공한 1억여원 중 절반인 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이틀 아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를 만에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 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A씨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아이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당시 아기가 유기됐더라도 누군가에게 구조돼 생존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말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이정민기자 ljm7da@mdibbo.com

신생아 살해한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우리동네 사장님

사랑방이 응원해요!

내세요!

중앙분리대까지 차지한 불법광고물

현수막·거리 난립 이어 도로까지
도시미관 저해·보행, 운전 불편도
지난해 부과 과태료 38억원 달해
광주시, 시행사에 직접 징수나서

광주 도심 도로 한복판까지 번진 불법전단으로 운전자들이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길거리는 물론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하고 있다.

자치구 별로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광고 대행사의 폐업 짐수를 극복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초교 사거리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향하는 독립로의 차선 분리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선 분리대에는 A4용지 크기의 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이 벼젓이 붙어있다.

이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운전자의 시선을 뺏는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다.

남광주역 방향 대남대로에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임시로 울타리에도 같은 방식의 불법 광고물이 붙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으나, 단속 인원만으로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숫자로 인해 자체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자치구의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건수는 1만5천373건이며 부과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

광주에서 하루 평균 42건 이상 불법현수막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5㎡를 기준으로 32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과태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균질되지 않는 이유는 광고대행사들의 폐업 짐수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맡는 시행사들이 별도의 광고대행사를 두고 운영하다, 과태료가 과도하게 쌓인 시점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짐수를 피한다. 이 때문에 높은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짐수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현수막과 달리 작은 크기의 불법전단은 단속 자체에도 애를 먹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천355건의 불법벽보와 전단에 대해 1장당 5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돼 그나마 수거가 용이한 반면, 불법전단은 골목 곳곳은 물론 도로 한 가운데인 차선 분리대에도 설치돼 있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아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차치구 관계자는 “자체 인력이 모자라, 용역을 통해 따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며 “안전상 위험성이 큰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다 보니 전단은 상대적으로 단속 건수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고대행사가 아닌 시행사에 대한 과태료 직접 징수와, 앱을 통한 신고·독려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이 82만건인데, 단순히 단속을 많이 할 게 아니라 과태료가 실제 짐수까지 이어져야 불법광고물이 균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실제 시민들의 신고가 많은 지역의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만큼 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도 적극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정규기자 lg0518@mdibo.com

광주시, 봄철 산불예방 ‘온 힘’

18억 투입 5월까지 대책본부 운영

광주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펼친다.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산불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한다.

또 산불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96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신문, 방송, 대중교통,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별일 계획이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박석호기자 haita2000@mdibo.com



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떡국 나눔 ▲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가 31일 광주 북구 각하동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새해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떡국 상차림&키트 나눔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 회원들이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고 있다. 임정우기자 jo5605@mdibo.com



독도체험관
오늘 연다

물과 영상으로 설명한다.

특히 ‘독도 체험’ 공간은 ‘숨은 독도 생물찾기’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찾아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또 독도와 관련된 퀴즈·남말 활동지를 배치해 체험관을 관람한 후 완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밖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해 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다.

아울러 체험관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설치해 전시장 안내를 돋는다.

로봇은 전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해설을 제공하며 관람객과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

정운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새롭게 탈바꿈한 ‘독도체험관’은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험 중심의 독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m7da@mdibo.com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해마다 70여건

전남경찰, 스팟이동식 등 집중단속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각종 모임 등이 많이 이뤄지는 식당과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을 선정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SNS 등 사전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 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m7da@mdibo.com

나주서 마을버스와 화물차 충돌 3명 사상

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부딪쳐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31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나주시 왕곡면의 한 교차로에서 11화물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가 병원

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버스 승객인 8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버스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정우기자 lg0518@mdibo.com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



민주 총선 공천 면접 돌입… 임혁백 “국민 눈높이 공천”

내일 광주·전남 17개 지역구서 실시 예비후보들 평판조사·적격성 심사 공관위 “시스템 공천 멋지게 승복”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에 돌입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옛새 동안 면접을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서을을 제외한 17개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이 실시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에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정권을 심판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체질문과 개별질문, 심층질문으로 세분화 했다”며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말하기 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겸허하게 들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면접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공관위의 시스템공천 결과에 대해 아름답게 승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구 달서구을을 시작으로 33개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광주시 7개 선거구는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전남지역 10개 선거구는 오후 2시 34분부터 면접이 각각 시작된다.

광주 동남갑은 오경훈 전 광주시 남구청 정책 보좌관과 정진숙 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면접에 나선다.

광주 동남을은 총 8명이 면접 대상이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 노희용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 실장, 양형일 전 17대 국회의원, 이병훈 민주당

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 일정	
1월 22일~1월 28일	국민 대상 설문조사(공천 기준)
1월 31일~2월 5일	전국 총선 후보자 면접
2월 2일	광주·전남 총선 후보자 면접
2월 6일	종합 심사

그래픽=이은영 key2015@mdiboo.com

광주시당위원장,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다.

광주 광산갑은 박근택 현 민주당 당대표 법률 특보와 이용빈 국회의원이 면접에서 만난다.

여수 갑은 박기성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와 이용주 전 20대 국회의원, 주철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면접에서 만난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읍은 권향업 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유근기 전 민선 6·7기 곡성군수, 서동용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나주·화순은 손금주 전 20대 국회의원과 구충근 전 화순군수, 최용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신정훈 국회의원이 면접에서 만난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영호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와, 문금주 전 전남도 부지사, 조재환 전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 김수정 현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부 특임교수, 김승남 국회의원이 면접에 나선다.

공관위는 면접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다음달 6일부터 종합 심사에 들어가 최종 공천 낙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천 심사는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면접은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공관위는 지난 22~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 ‘부패 근절’이 1순위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인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과 발표 전 대상자에게 차례로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김병운기자 bwj2388@mdiboo.com



민주당 공관위, 총선 후보 공천 면접 시작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 백년대계, 사회적 핵심 주목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첨예 2단계 걸쳐 4월 중 공론화 결과 발표 목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 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큰 과제를 부여받았다. 먼저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의 숙의 과

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갈등이 많은 이슈인 만큼 숙의 절차에 대한 이견에도 잘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은 특위를 앞두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연금개혁은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고,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며 “총선 시계에 무관하게 연금개혁을 하자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도 내부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재정방식 개선 등 사회적 논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국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공론화 관련 절차에는 총 2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론화위는 먼저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여론조사 설문지를 완성한다. 2단계로는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단체 학습을 통해 설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와 병행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시행한다. 서울=김병운기자 bwj2388@mdiboo.com

김세미가, 31사단 유격장에 ‘종합스포츠타운’

스포츠와 휴식 즐길 특별 명소로



김 예비후보는 “종합시민스포츠타운 내에 산악 자전거길, 서바이벌 게임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플라잉 짚라인, 유아숲 체험장, 파크골프장, 민주시민의 숲 등을 조성할 생각이다”며

“온 가족이 모두 스포츠와 휴식을 즐기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특별한 명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와 지역 발전, 시민의 편익을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군사시설 활용모델로 전국적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자기자 foresight@mdiboo.com

김명진 “3·4·12플랜”, 명품 서구 만들 것

시민·기업 상생 콤팩트 시티 조성



김명진(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명품 서구를 만들겠다”며 “3·4·12 플랜”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품 서구 건설을 위한 3대 목표와 4대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기본 목표는 활기찬 경제, 든든한 복지, 깨끗한 환경으로 4대 발전 방향으로는 광주형 통합돌봄 선도도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도시, 중산층·서민이 살맛나는 도시, 어르신과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밝혔다.

12대 추진 과제로는 군공항 이전 신속 처리

주철현, 어르신 복지·어르신 일자리 창출 정책 발표

노인 일자리 경로당 도우미 신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한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 갑·사진)은 31일 총선 3호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앞서 1호와 2호 공약으로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육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발표한데 이어 3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은 20%)을 분담하고 있다.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 되는데 여수의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 12월 기준 6만1천135명으로 전체의 22.5%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어르신 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로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병운기자 bwj2388@mdiboo.com

김성진, 3일 선거사무소 개소



김성진(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구 수완동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선다. 이날 구성될

‘바르고 유능한 선대위’ 2차 인선 고문단으로는 김치우 전 광산구청 과장, 박해구 전 광주시청 과장, 정봉석 에너지관리 명장 등이 맡을 예정이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이용관 무역업 대표(경제), 윤인모 호남대 명예교수(교육)가 맡게 된다. 정책 자문단은 단장에 이경선 전 동신대 교수와 임명되고, 박용 전 광주시청 과장, 조영심 전 북구청 과장, 김충남 전 조선대 교수 등이 합류하게 된다. 총괄 조직부부장으로 이준열 전 광산구의회 의장, 이준형 전 광산구의원 등이 임명된다.

이미지자기자 foresight@mdiboo.com

문금주, 고흥 우주산단 예타 면제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문금주(사진) 예비후보가 고흥 우주산단 자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 터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강력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흥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가 단순한 절차적 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이다”면서 “고흥 우주산단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또 위성산업특구인 사천과 연구개발특구인 대전과의 협력을 통해 발사체산업특구인

고흥을 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jck4151@mdiboo.com



하루 11만뷰… 광주·전남 1등 플랫폼



전남도 '묘도 LNG 허브' 투자 의욕 살리기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첫 도입 민간사업에 224억 출자해 참여계획 "전남 한발 앞서지 않으면 타지자체로"

전남도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밟아놓은 나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기업이 차근차근 준비한 1조4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고금리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밟아놓은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믿는 것이다.

전남도는 부족한 에너지원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두 마리 토끼 사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 목을 끌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에 참여키로 하고, 첫 후보 사업으로 1조4천억 규모의 여수 묘도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LNG 터미널 사업'은 민간기업인 한양이 지난 2020년 1조4천원을 투입, 여수 국가산단 인근 묘도에 세계 최대 상업용 LNG 허브를 구축하기로 하고 첫 삽을 뜯은 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양은 당시 2024년까지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천t 규모의 부두시설을 준공하고 장기적으로는 LNG 탱크 4기를 추가해 총 8기의 탱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이 동북아 에너지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LNG 터미널 사업'이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물꼬를 트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3천억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이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금리로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완화하고, 대규모 민자투자를 유도해 지역소멸 방지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LNG 터미널 사업'을 추진 중인 한양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출자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 출자는 한양이 2020년 3월 설립한 SPC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출자액은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20%) 중 사업시행자 출자금(2천800억 원)의 의무 투자액(8%)인 224억원이다.

전남도의 출자 등이 마무리되면 2월 중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되면 올해 LNG 저장탱크와 본설비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탱크 3기 준공 및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등에 부족한 에너지원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LNG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이 기대된다며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사업성이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도민의 혈세가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전남이 동북아 에너지 중심 국가가 됨으로써 에너지 국가 안보를 담으로 확보할 수 있고, 펀드는 지원 후 사라지는 보조사업이 아닌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구조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심사 과정에서 묘도 'LNG 터미널 사업' 전체에 대해 정부와 민간(PF시장)에서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전국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출자와 투자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안보 차원에서도 LNG 허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두고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여수가 '제2의 싱가포르' '동북아 LNG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뿐만 아니라 경북, 충북, 충남 등 타 시도에서도 펀드 선정 경쟁에 적극 나선 상태"라면서 "전남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1조4천억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여서 펀드 지원 목적으로 부합하고 경쟁력이 높다. 하지만 선착순 공모로서 전남이 한발 앞서지 않으면 정부 예산은 타 지자체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류성훈기자 rsh@mdibo.com



전남 관광 플랫폼 구축 맞손 지난 30일 목포과학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 기업협력센터(ICC)' 문화·관광 지자체 연계 플랫폼 발족식이 전남관광재단, 목포문화재단, 신안군관광협의회, 해남문화관광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강진문화관광재단, 완도군해양치유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전남 관광 활성화 기반 연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새단장한 광주CCTV센터, 시민 안전 꼼꼼히

노후화로 시스템 교체·전송망 속도개선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현대식 내부환경을 갖춰 새롭게 운영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월에 걸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전송망 구성과 내부 환경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10여년간 운영되면서 시스템이 노후화했다. 이번 새 단장은 지난해 10월 CCTV 회선사업자로 선정된 LGU플러스 투자로 추진됐다.

특히 101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교체와 보강(26억원), 관제실 환경공사(25억원), 현장설비 교체(32억원), 영상자료 실증시스템 구축(18억원) 등이 이뤄졌다.

또 CCTV 전송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송망을 이원화하고 전송장비 교체, 전송속도를 5배로 상향했다.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제실 리모델링, 시스템실 통합이전, 노후시스템 교체, 영상열람실 확장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영상체험관을 1층 별도 공간으로 마련해 가상현실(VR)과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추가하는 등 실감도를 높였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영상자료 실증 연구실도 구축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반출시스템과 접속기록시스템 등은 가운데 들어갔으며, 선명한 영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심에 설치된 노후 CCTV 421대 교체, 498대 보강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구간이 완료된 전송망은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광주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2031년 2월까지 7년간 전송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새 단장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돼 시민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mdibo.com

전남 E-모빌리티, 동남아·중동시장 공략

초소형 전기차 등 신규 국비사업 추진
도, 부품 생산 지원센터 구축 등 지원

전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e)-모빌리티가 친환경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빠르게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이-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국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구축(90억원), 동남아 시장에 맞춘 우수한 우측핸들(RHD) 차량과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초소형 전기차 수요연계형 부품 기

술개발(150억원) 등이다. 해외바이어 상담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한 '전남 모빌리티 데이'도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등 이-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첫 '전남 모빌리티 데이'는 에이치비, 대풍, 세보 등 전남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필리핀 대기업 LCS 그룹, 일로코스 주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회와 연계협력 강화 등 글로벌 이-모빌리티 중심지로의 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한국スマ트이모빌리티협회와 대풍, 에이치비가 필리핀 엔코 기업과 필리핀 진출을 위한 조립공장 설립·생산·판매를 위한 이-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세보모빌리티도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춰 완제품 수출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도내 기업이 설립한 동남아 조립공장에서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75억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중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장·성형·용접 등 생산장비를 갖춘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국제기준에 맞는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해 도내 기업의 해외 맞춤형 인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라이브 테스트베드와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기자 wordflow@mdibo.com

목포청호시장 설 물가안정 점검

도·행안부·목포시, 전통시장 가격 동향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목포시와 합동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대비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지난 30일 점검하고, 평균가격 이하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 장마, 폭염 등 이상 기후로 12월 기준 전남지역 농산물과 과일류 소비자물가지수가 17.1%, 28.4%로 각각 상승하면서 설 전에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22개 시군에서는 물가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오는 8일까지 3주간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선 행정안전부의 전남지역 물가책임관인 황기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기획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목포시 합동 물가안정 현장점검. 전남도 제공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손사규 청호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전남도가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기연 운영기획관은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내 주차 하용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정기자 wordflow@mdibo.com

전남 관광 콘텐츠 발굴 머리 맞대

전남도는 광역관광 핵심 콘텐츠 사업 발굴을 위해 2024년 제1차 관광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착수 및 미래 도심관광고통 2025년 상용화 등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대응한 대형 관광프로젝트 발굴로 전남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관광 휴양 벨트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박창규 전남도립대 관광학과 교수, 임영규 전남수목원엔탈레 위원장, 이진의 전남연구원 관광학 박사, 최재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한승훈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김미영 금양이엔씨 건축사, 과행구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은성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광훈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교수 등 관광, 문화, 미술, 건축 분야 민·관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랜드 마크 조성 등 미래 전남 관광을 선도할 핵심 콘텐츠 사업 발굴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선정기자 wordflow@mdibo.com

신안 천사약국, 365일 심야 이용 가능

도, 공공심야약국 1곳 추가… 총 9개

전남도는 아간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8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시간(22~24시)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남도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목포, 순천 각 1개소를 시작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올해 신안(천사약국)을 추가해 목포(비타민약국)·여수(백운약국)·순천(오가네약국)·나주(목사골한국약국)·광양(중마대형약국)·고흥(화신약국)·영암(푸른약국)·무안(바른약국) 총 9곳에서 운영된다.

지난 한 해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2만 4천 33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일반의약품 소비 2만 870건, 조제나 처방 1천 757건, 전화상담 2천 388건으로 하루 평균 67명이 공공심야약국

선정기자 wordflow@mdibo.com

취업·주거·심리… "광주 청년 고민 함께"

광주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광주시청년사회서비스 통합지원사업'이 광주지역 청년들의 사회서비스 욕구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나타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양화사업'에 선정돼 청년을 대상으로 다각도의 사회서비스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수요조사를 통해 나타난 취업, 주거, 심리지원 등 청년들의 3대 관심사를 아우르는 사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mdibo.com

‘낙태권을 헌법에’ … 프랑스 하원 승인, 첫 관문 통과

개정안 초안 493표, 압도적 찬성
내달 ‘보수 장악’ 상원 통과 관건
마크롱 “낙태 자유를 기본 권리로”

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30일(현지시각)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고 AP통신과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소수 연합과 좌파 야당 의원 등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번 투표 결과를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



프랑스 국회는 프랑스 헌법에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봉안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8일 한 여성이 파리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헌법상의 낙태’라고 쓰인 포스터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 개정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대부분 의회 표결로 승인됐다. 이렇게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 제라르 라르세르 상원의장을 비롯한 몇몇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아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낙태권 퇴보 흐름에 반대해 이뤄지고 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제한적 낙태 허용국으로 2022년 3월부터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프랑스에서도 낙태권을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프랑스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낙태 허용’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합법인 낙태를 헌법에 개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크롱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양원 특별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뉴스

샌프란회담서 바이든 만난 시진핑

“中, 미국 대선 개입 없을 것” 확약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2024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미 CNN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먼저 이 문제를 꺼냈고, 시 주석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약속은 지난 26~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이크 셜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에서도 재차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셜리번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꺼냈고, 왕부장은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번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CNN은 중국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미중간 고위급 대화에서 여려차례 논의됐으며, 이러한 점은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와 미국 관료들이 2016년 대선 이후 얼마나 선거개입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등 러시아 기관들이 주도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 유리한 글을 SNS에 올려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이란과 쿠바, 중국 요원들 역시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했으나 러시아 작전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CNN은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약 1년 만에 열린 대면 회담이었다.

뉴스

日 외무상, 신년 외교 메시지서 “독도는 일본땅”

‘5선 도전’ 러 푸틴, 재산공개
6년간 소득 10억·車는 60년대 소련제

오는 3월 5선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평형 아파트 한 채와 지난 6년 간 수입으로 약 10억원을 신고했다.

30일(현지시각) 인테르파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23평형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차고(18㎡) 1곳을 대통령 후보 소득 및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는 2017년~2022년 수입액으로 약 6759만 루블(약 10억442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푸틴이 모스크바 아파트 1채와 주차장을 무제한 이용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차량 보유 목록도 이목을 끌었다. 보유 차량으로 1960년, 1965년에 생산된 가즈 M21 2대, 2009년형 라다 나비 1대 등 모두 3대를 보고했다. 6년간 푸틴 명의의 은행 계좌 수는 13개에서 10개로 줄었고, 계좌에는 약 5442만 루블(약 8억1026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숨겨진 저택이나 자산이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자료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식 후보로 대선에 입후보한 이후 공개됐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오는 3월 15일~17일 치러진다.

연례 외교 연설서 11년째 망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의



본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언급한 뒤, 일본 외무상은 11년째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도시마 광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실시하며 확실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원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러조(북러) 간 강화된 군사 협력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하

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중일(한중일) 협력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의장국의 대처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과 함께 중일 영토 분쟁 지역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중러 협력을 포함한 주변국에 서의 군사활동 등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단행한 대 대해서는 “즉시 철폐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무등일보 구독은
지역사랑의 실천입니다

강진
061)434-6830

나주(빛가람)
062)376-5990

신안
061)285-1693

장흥
061)725-8505

고흥
061)833-7875

담양
061)381-5055

여수
061)651-2626

진도
061)544-2028

곡성
061)363-5365

목포
061)244-4078

영광
061)351-9000

함평
061)324-8111

광양
061)792-0585

무안
061)226-3586

영암
061)471-3219

해남
061)533-8811

구례
061)782-9797

보성
061)372-8848

완도
061)552-1070

화순
061)374-8848

나주
061)331-0087

순천
061)746-1006

장성
061)394-7878

| 광고문의 | 062)606-7772
| 구독신청 및 재배포 문의 | 062)606-7700

www.mdilbo.com

무등일보 문화관광 전문 매거진

아트 plus

| 대표전화 | 062)606-7750

| 광고문의 | 062)606-7772

|



여수시, 야간관광 힐링도시 도약

문화부 특화도시 공모 선정
4년간 32억 투입 본격 조성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추진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제적 야간관광 힐링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협력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특성화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외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마지막인 이번 공모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여수시를 포함해 공주시, 성주시 등 총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2억, 시비 20억 등 총 32억 원을 투입, 밤의 소리가 특별한 야간관광 도시, 여수(Rhythm of the Night, Yeosu)를 주제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의 다채로운 밤의 모습을 청각화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 국제적 야간관광 힐링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여수시 제공

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동 항 수변공원·남산공원·예술의 섬 장도 등의 야간관광 공간 확대를 통해 여수

방향을 모색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여수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야간관광 브랜드인 '대한민국 밤반곡곡'에도

"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그간 '여수밤바다'로만 각인되어 온 여수 야간관광이 미지 변화를 꾀해 국제적인 야간관광 힐링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공모에 지난 2022~2023년 선정된 7개 지자체는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등이다.

여수=강현수기자 kms305@mdiboo.com

만의 특별한 야간관광 경쟁력 및 차별화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여수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야간관광 브랜드인 '대한민국 밤반곡곡'에도

"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그간 '여수밤바다'로만 각인되어 온 여수 야간관광이 미지 변화를 꾀해 국제적인 야간관광 힐링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공모에 지난 2022~2023년 선정된 7개 지자체는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등이다.

여수=강현수기자 kms305@mdiboo.com

'K-디즈니 순천' 문화콘텐츠 사업 탄력

노 시장, 문체부 장관과 만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건의



발사업을 건의했다.

또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과 관

련해 정부의 만화계 '칸 영화제(가칭 국제 만화·웹툰 시상식)'와 연계해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산업전에 대해 설명하고 K-만화·웹툰의 대표 축제로 웹툰 종주국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노시장은 기회발전특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엔터테인먼트 기관과 기업의 산업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문화도시 지정 시 최대 20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삼고 유니버설 문화도시를 조성, 애니메이션 산업전을 개최하는 등 K-디즈니 순천을 만드는 추진 동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mdiboo.com

장성군, 군민 삶 든든하게 지킨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오늘부터 시행

보장 항목이 대폭 확대된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장성군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왔다. 올해는 기존 17개 보장 항목에 ▲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 ▲ 독액성 등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무려 8개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포함된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나 전동 활체어 사고에도 3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앤에이치(NH)손해보험사에 직접 연락(1644-9666)해 신청한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1221@mdiboo.com

고흥군, 민원응대 암행평가단 공모

8일까지 10명… 11월까지 운영
군민 눈높이 친절 브랜드 정착

고흥군은 군민 눈높이에 맞는 친절·청렴의 브랜드 정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제2기 민원응대 암행평가단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2기 민원응대 암행평가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민원인으로 암행 방문해 사무실 환경, 상담 태도, 맞이 태도 등 민원응대의 전체 만족도에 대해 부서 실태평가를하게 된다.

군정에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이동하면서 민원응대 품질평가 활동으로 고흥군 친절·청렴 브랜드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군민은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다. 평가단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민원응대 평가단 활동신청서'를 작성,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군 종합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군정 활동, 공공 기관 근무 경력 등 서류 심사로 우선 선별한다. 김종천기자 jck4151@mdiboo.com



'산림600' 산불 없는 보성군 온힘

보성군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 및 계도,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대응태세를 갖춘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2대를 구입하고, 암자 헬기를 지난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암

산자연휴양림 내 계류장에 배치했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1명을 선발해 전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임업 부산물의 불법소각 등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림산업과에서는 소형파쇄기를 무상 대여하고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정종민기자 jjiman@mdiboo.com

화순군, 경작지 토양 정밀점검 실시

맞춤형 정보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화순군은 경작지 토양 정밀점검을 통한 작물별 맞춤형 토양관리 정보를 제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경지 토양점정은 산도(pH), 전기 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등 9항목의 토양 영양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적절한 양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 처방해 작물의 영양장애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균일한 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토양점정 시료 채취 시기는 작물 재

배 전 또는 수확 후이며, 걸흙의 이물질을 걷어낸 후 작토층(15cm) 깊이 채취해야 한다. 필지별로 5곳에서 10곳 정도 채취 지점을 선정해 군일하게 채취하고, 채취한 흙은 건조해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나 읊면 농업인상담소에 검정을 의뢰하면 된다.

시비 처방서 발급은 약 2주 소요되며, 비료 사용 시기를 고려해 토양점정을 의뢰하면 된다. 시비 처방서는 우편 또는 문자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고 검정 결과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mdiboo.com

ING COMPANY

KIDP 한국디자인총동원 산업디자인문화사

아이엔지컴퍼니

아이엔지컴퍼니는 클라이언트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더 큰 새로운 물을 추구해 나가는 디자인회사입니다.

향후가 더 크게 급변하는 세계회의 물결속에 체계적인 전략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한 경쟁력을 강한 힘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힘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엔지컴퍼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는 산업형을 여러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탄탄한 기획력과 치밀화된 감각적인 디자인그룹 아이엔지컴퍼니는 무한한 가치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귀사의 비즈니스에 든든한 힘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CORPORATE IDENTITY ● BRAND IDENTITY ● CHARACTER ● BROCHURE ● CATALOG ● PUBLIC DESIGN ● DESIGN SERVICE BUSINESS ● POWER POINT

tel. 010.6607.9655 fax. 062.443.3212 e-mail. sangwoo0116@hanmail.net

나주시, 시민과 함께 국가정원 만든다

영산강 정원 조성 밀거름

'수목기부제' 참신 평가

저류지 활용 치수·친수사업



나주시가 영산강 정원 조성의 밀거름인 '수목기부제'를 통해 시민·향우들과 국가정원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시가 시민의 자발적 수목 기부를 통해 영산강 저류지를 더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영산강 정원 조성의 밀거름이 될 '수목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목기부제는 개인과 단체, 기관 등에서 나무를 나주시에 기증하는 제도다. 사유지, 하천·도로·사업장 등 개발 예정지에 방치돼있거나 불필요한 수목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시에서 이식 비용을 지원한다. 기증된 나무들은 영산강 정원이 조성될 강 저류지에 새롭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정원'을 기치로 나주시가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다. 정원 조성 시작 단계 시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수목 기부를 통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았다는 취지에서다.

묘목을 식재할 경우 그늘질 정도의 수형, 수세를 확보하기까지 많은 수십 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목 기부제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참신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는 영산강 정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규모 수목 기부자, 기관·업체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시민 등 각계각층 5명이 개인 소유의 대형 수

목을 기증했으며 이어 10월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에스이주식회사에서 시장 가치 1억원 상당의 수목을 각각 기증하면서 대규모 수목기증자 제1~2호로 등록돼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도 나주 산포면이 고향인 장인규 흥인농원 대표는 에메랄드 골드를 비롯한 수목 3천400주(2억9천400만원 상당)를 기증하며 세 번째 감사패 주인공이 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각계각층 기부자

분들이 자발적 기증해주신 수목은 훗날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할 영산강 정원의 뿌리이자 귀중한 자원"이라며 "사시사철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져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영산강 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1천908㎢ 규모 영산강변 저류지의 준설을 통해 담수 능력을 700만t에서 약 1천만t으로 확보하고 변형된 저류지에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해 국가정원급 생태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mdilbo.com

함평군, 등산로정비 본격화 생활밀착형 도시·가로숲길 조성

함평군이 함평군민의 산림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생활환경을 등 도시숲, 가로숲길 조성 및 등산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1일 함평군에 따르면 사업비 32억 여 원을 투입해 대동 향교숲 인근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4개소와 기산에서 곤봉산에 이르는 테마숲길 및 가로숲길 28km를 조성하고, 현 화양근린공원을 내년부터 지방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군은 유휴지에 교목, 초화류 식재 및 정원조성을 통해 군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등산로 정비 및 테마숲길을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민의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힐링 걷기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 3월 완공 예정인 활토를 활용한 맨발 길을 수산봉 일원에 조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정창현기자 jch385@mdilbo.com

새공예박물관, 3월30일까지 기획전
부·행운 상징 작품 등 1천100점



신안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국내 도자 부엉이 공예품.

신안군제공

으로 '부엉이살림', '부엉이 곳간'이라 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기획전에는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등 20개국에서 수집된 공예품 70점과 국내 도자 공예품 13점 등 총 83점의 부엉이 공예품을 3월 30일 까지 전시된다.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공예품은 10

여년 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국내·

외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으로 현재 27

개국 공예품 1천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작품성이 좋고, 이야기가 있는 공예품 50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외부에 조성된 새조각공원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조각 100여 점이 자연고석, 야생화와 함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신안=박기숙기자 pkw4803@mdilbo.com

신안 흑산도 '부엉이 곳간' 서 행운을



신안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국내 도자 부엉이 공예품.

신안군제공

으로 '부엉이살림', '부엉이 곳간'이라 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기획전에는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등 20개국에서 수집된 공예품 70점과 국내 도자 공예품 13점 등 총 83점의 부엉이 공예품을 3월 30일 까지 전시된다.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공예품은 10

여년 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국내·

외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으로 현재 27

개국 공예품 1천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작품성이 좋고, 이야기가 있는 공예품 50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외부에 조성된 새조각공원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조각 100여 점이 자연고석, 야생화와 함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신안=박기숙기자 pkw4803@mdilbo.com

진도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장

농산물 직거래·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있다. 또 3층은 관내 수산인들이 소통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개장일에 맞춰 방문객들을 위해 이동식 장바구니를 증정하고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를 함께 진행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매장을 찾은 한 군민은 "신선하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목포 대형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집 가까운 곳에 지역 농산물 대형 판매장이 생겨 정말 좋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수협 지역 농산물 복합참여센터(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농수산물의 유통 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31억원이 투입돼 진도읍 동외 1길 부지에 총면적 5천64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다.

1층

매장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육·제과점 등이 있고 2층은 판매 시설과 식당가, 카페 등 소비자 편의시설

진도=박현민기자 hm375@mdilbo.com

영암군, 올해의 책과 인문도시 선포

4개 분야 도서 선정… 작가와 만남

영암군이 지난 30일 영암도서관에서 '책 읽는 영암, 2024 올해의 책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영암여고 학생과 영암 문인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2024년 영암군 올해의 책은 지난해 영암군민 후보 도서 추천, 온·오프라인 군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영암군 올해의 책은 ▲어린이 분야 김혜정 작가의 '열세살의 견기를 봅' ▲ 청소년 분야 김혜정 작가의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학 분야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비문학 분야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

을 다시 산다면' 등 4권이다.

책 선포식에 이어 어린이·청소년 분야 선정 도서 저자인 김혜정 작가와 만남의 시간도 열렸다.

군 관계자는 "정기 인문학 강좌, 인문 주간 행사 등으로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문화를 가꾸겠다"고 전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mdilbo.com

영광군, 전국 최초 어선 LED 경광등 보급

사고 예방·야간 안전 항해 기대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조업 중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항해 시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에 LED 경광등 및 야광 반사판을 보급했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어선 108척에 LED 경광등 134대와 야광 반사판 202장을 보급해 조업 중인 어선과 야간 항해 어선의 위치 파악이 원활하게 했

다. 이를 통해 운항 중인 주변 선박과의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항내 정박 중인 여러 어선이 일제히 경광등을 밝힐 경우 야간 경관조명으로 활용, 어촌과 어항 그리고 어선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도 기대된다.

영광=한상덕기자 alv715@mdilbo.com

사랑방 입점 우수업체

힘들게 발품팔지 말고 사랑방에서 찾자!

똑똑하게 우리연작

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적 서비스로 최저가를 비교해 보세요.



사랑방 입점 우수업체

▶디자인그룹예아 | 광주 서구 회재로 910 (충암동)

062)654-7412

▶누리개발

062)528-0455

▶디자인 쏘울 | 광주 남구 회재로 1200번길 11 (주월동)

062)401-0488

▶희망인테리어 | 광주 북구 서화로 306 (오지동)

062)262-2349

▶아트하우스 | 광주 광산구 청담내촌로 70번길 55 (월계동)

062)971-8705

▶메종인테리어 | 광주 북구 북문대로 33번길 26 (운동동)

062)515-5601

▶디자인도시공간 | 광주 남구 대남대로 107번길 4-1 (방정동)

062)676-6617

▶사랑방 광고문의 510-4500

▶사랑방 광고문의 510-4500

무료견적상담 GO

▶스마트폰 카메라 켜고 QR코드 비추기

▶사랑방닷컴 → 인테리어 → 견적받기

housing.sarangbang.com



그래도 설… 가격 낮추고 고객에 ‘손짓’

이마트 피코크 50종 구매 시 상품권 롯데, 선물세트 1천300개 할인·덤도 흠풀은 축산·수산·과일 총망라 선봬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연이어 열고 있다.

명절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을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일부품목은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2월 15일까지 명절 간편 대표 주자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행사 상품들을 2만 5천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 대상 품목은 떡국떡, 사골 육수, 모듬전, 오색고지전, 동태전, 합쌀식혜 등 간편 먹거리부터 참기름, 부침가루 등 총 50여종 상품이 포함됐다.

이마트 자연주의 브랜드의 간편 제수용품들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30% 할인한다.

또 기간 CJ 전품목을 4만 5천원 이상 결제 시



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5천원 상품권, 오뚜기 전품목 4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을 증정하는 등 브랜드 구매 금액 별 상품권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소불고기는 고객들이 소불고기를 살 때 대파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점을 포착해 대파를 곁들인 '임자도 대파 소불고기'로 기획하고, 2월 한 달 동안 정상가보다 41% 낮춰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까지 총 1천300여개의 선물세트에 대해 행사 카드로 결

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이벤트를 연다.

더불어 일부 상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과 엘포인트 회원 대상 특별 할인, 구매 수량에 따른 멤버 증정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명절이 1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먹거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선물세트 위주로



이마트원족·롯데쇼핑 제공

본 판매를 준비했다. 명절과 같이 긴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이 많아져 선물세트를 활용한 집밥 수요가 높아지는 점도 고려했다.

명절 대표 먹거리인 LA갈비 선물세트를 비롯해 구이류 축산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식후 디저트에 먹기 좋은 과일 선물세트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특히 사과와 배의 시세가 높은 점을 고려해, 샤인머스캣과 다른 과일을 조합한 선물세트의 비

중을 늘렸다.

홈플러스는 설맞이 알뜰 쇼핑을 위해 역대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2월 7일까지 진행한다.

차례용 음식을 비롯해 고객 수요가 높은 명절 필수 아이템을 충만하게 할인 가로 선보이며 명절을 앞둔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고자 기획했다. 행사 기간에는 각종 제수용품과 축산, 수산, 과일 등 신선식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특히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면 보다 알뜰한 쇼핑이 가능하다.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데친 문어(100g)'는 30% 할인, '차례용 큰닭(1.5kg)'은 4천원 할인, '믿고 먹는 농협 상주 햅 꽂감(12입)'은 2천 원 할인한다.

고주현 롯데마트 커머셜플랜팀장은 "감사한 분들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절 고객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명절 먹거리와 제수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보해양조 설 선물세트, 어플로 간편하게

매취순 6종 등 15종… 대형마트·편의점서

보해양조는 31일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구성의 선물세트 15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매취순 세트 6종, 매실 식품 2종, 매실청 & 젤임 세트 6종에, 보해소주까지 총 15종의 폭넓은 선택지가 특징이다.

보해양조 설 선물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특히 GS리테일의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인 '와인25플러스'에 입점해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와인25플러스에서 판매되는 보해양조 선물세트는 15년 숙성 매취순 3분입, 순금 매취순 2분입, 매취순 3L와 작년 5월 GS25와의 협업으로 출시된 매실하이브리드 24개입이다.



보해양조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류 스마트 오더 앱 '데일리리치'의 '우리 동네 술집업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앱으로 주문한 후 지정한 근처 식당이나 주류 전문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도찰원기자 repo333@mdilbo.com

부모님 댁에 담채 ‘최신 김치냉장고’ 놔드릴까

롯데하이마트 고객 대상

위니아가 롯데하이마트와 '설맞이 한정 호도 선물'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하이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담채 고메 팬트리가 탑재된 2024년형 담채 스탠드형 467L 김

치냉장고를 비롯해 화이트색상의 330L 스탠드형 제품을 할인된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담채 고메 팬트리가 탑재된 2024년형 담채 스탠드형 467L 모델은 개시 이후 최대 할인 액으로 판매되며, 화이트색상의 최신 모델 330L 스탠드형 제품은 500대 한정으로 최대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시, 경영안정자금 2천650억 풀어
동행협약·대유협력 특별자금 포함
업체당 3억 한도, 이자차액도 보전

광주시는 고금리, 경기둔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경영안정자금으로 2천6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천500억 원보다 15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올해는 동행지원협약자금 1천억원과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특별자금 150억원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IBK기업은행과 동행자금자금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원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시에서는

2%의 이자보전,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보증수료 지원을 받게 되며, 보증수료를 지원받은 업체는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난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발생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별자금 150억원을 포함했다.

2024년도 경영안정자금 2천650억원 중 상반기 지원규모는 1천9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

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이고,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3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대출받을 수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광주 중기 경영난 해소에 ‘단비’

쌍암근린공원, 디자인 입고 특화공원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광산구 업무협약

(재)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시 광산구는 31일 광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쌍암근린공원 디자인 특화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쌍암근린공원'의 디자인 특화공원 조성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사업기획, 디자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공

동 노력 및 지원, 상호 연계 방안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지 내 2026년까지 국·시비 308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시아 캐릭터 랜드'가 조성되면 인근 쌍암근린공원과 연계해 광주의 대표 자연과 가족 친화 관광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생활의 플러스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다!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78x144 - B형 : 78x68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 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NAVER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거인의스프레스

소개하고 소개받고 싶은 이사전문회사!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1%가 부족한 99%의 만족은 만족이 아닙니다.

① 1톤 용당 이사 품종	④ 2~5층 새마을 배우
② 포장 → 평상 박스, 평상BOK 화물박스, 평상	⑤ 주부사원 평상, 경력 단장의 표로신 노후우
③ 평상 → 수리구, 평상, 폴대, 평상	⑥ 평상 → 수리구, 평상, 폴대, 평상
⑦ 2층 → 1~4층 평상, 폴대, 신상, 민간 품종	⑧ 평상 → 평상으로 매품하게 마무리

상당 대표 062)264-2424, 080-5234-2424

서비스 : 아어린 분리, 실균소독, 백화점TV 전용카페포장 및 키친에 이르기까지 원예 허브리

명님이들을 위한

동물의약품

기꺼운 약국 또는 동물병원에서 찾으세요!

울릉성 심부전 치료제	카디오세이버
증상 양성화 보조제	슈퍼펫
신장 기능 보호	키드니세이버

증상관리수술제 카디오세이버

증상관리수술제 슈퍼펫

태양광 발전소

•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예일 연금식 소득 발생

분양 사업주 급모집

■ 나주 봉황 와우리	- 100kW 9구좌 분양
■ 경북 예천군 마촌리	- 100kW 7구좌
- 30kW 4구좌 분양	
■ 장흥 버섯 재배사	- 100kW 6구좌 분양
	- 700kW 1구좌 분양

태양광 지붕 임대 발전사업 모집
태양광 무자본 시공 건축을 임대

상담 문의

C 유니솔라 에너지 H. 010-9340-5519

<http://unisolar21.com>

활끔한 일처리, 정직, 성실, 책임감으로
평생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 무료 출장 감정 ·

• 당일 명의 이전 ·

• 현금 즉시 지급 ·

(주)일동모터스 이사 이 회성

H. 010-2649-7305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전남 건설인도 ‘목청’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인 전남 지역 건설인들도 상경 투쟁에 나섰다.

31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건설업계 협회·단체 공동으로 주최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안 불발 규탄대회’에 마찬가지로 전남도회장을 비롯해 대표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건설협회장 등 50명 상경
오늘 국회 임시회서 ‘2년 연장’ 호소
50억원 미만 공사 확대에 우려 제기

이들은 이날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책임 범

위가 너무 넓고 내용 또한 추상적이어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으로 안전 보건 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확대(120억원→50억원),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기피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상승한 반면, 산업안전관리 비용은 10년째 고정돼 실태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안전 보건관리의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회는 50억원 미만 공사 확대 적용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비용과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회는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과 더불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증가하는 안전관리 비용 등을 반영한 충분한 안전관리비 인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규정의 신설도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체원 기자 repo333@mdiboo.com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산·학·연·관 협력 포럼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술 지원 공유”
양질 정보·네트워킹 제공, 기업 도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0일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해상풍력 포럼 및 수혜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분야의 현황 및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한 전남개발공사는 2016년 전남풍력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정부와 전라남도의 풍력산업 육성 정책 부응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자체, 발전사, 관련기업간 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통해 전남 풍력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

포럼에 참여한 57개 기업 및 기관의 150여명의 해상풍력 산업분야 전문가들은 전남 해상풍력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기술 지원’ 사업의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0일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해상풍력 포럼 및 수혜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혜택으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은 광주·전남의 14개 기업들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화합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었다.

전남풍력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확보에 힘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바차

를 가해야 할 때다. 이 행사를 통해 산·학·연·관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풍력산업협회도 활동 영역을 다각화해 양질의 정보와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자 wordflow@mdiboo.com

광주TP, 기업지원예산 축소 대응 긴급 경영전략회의

지역 경영위기 극복 공감대 형성
기업 지원예산 확보방안 공유도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올해 정부 및 자체 예산축소로 지역 내 기업의 지원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지역 과학과 산업의 거점기능 강화 및 신규사업 확보방법 등의 긴급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광주TP 임직원은 예산

축소로 인한 지역 산업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비지원(공모) 사업을 확보해 지역기업 경영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 형성과 의지를 다짐했다.

예산축소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대응방안과 지역 혁신기업 육성과 미래 과학·산업의 기반확보 등 중장기 대응방향이 다각적으로 논의됐고, 특히 각 센터 및 팀별 기업지원예산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지원 예산이 감액되거나 부족한 사업을 진단하고 기업지원예산 확보방안을 공유했다.

광주TP는 올해 약 250억원 규모의 신규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 및 국비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사업 및 기획과제 현황’을 점검해 ▲단기 비인프라성 기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기적으로 인프라성 기업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TP가 지역 과학과 산업의 미래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업에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한경기자 hkk42@mdiboo.com

전남FTA 통상진흥센터, 온라인으로 설명

11개 수출 유관기관 시책 전해
관련 기업들 궁금증 해소 박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남FTA 통상진흥센터(이하 전남FTA 센터)는 31일 11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4 수출 유관기관 온라인 시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참여 기관은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FTA 통상진흥센터 등 11곳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보험료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지원, 수출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운영,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도내 수출(희망) 기업에게 안내되고, 설명회 종료 후에는 전남도 ‘으뜸전남튜브’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상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지역 수출기업의 각종 글로벌 이슈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시책 설명회가 수출(희망) 기업에게 보다 폭 넓은 정보가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기자 hkk42@mdiboo.com

“국민연금 혜택 찾아가서 전해드려요”

국민연금 광주본부, 상무대 간담회
연금 연계제도·전업주부 임의가입

국민연금공단은 31일에 전남 장성군 소재 상무대 군인 아파트에서 직업군인의 배우자 중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설명회를 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로 1천700세대 대상 국민연금 제도안내 현수막도 게첨하는 등 지역사회 가정별 노후 연금소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의 낮은 노후 연금 수준을 높이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 운동선 광주지역 본부장은 노후 연금액을 높이는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활용 방법과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등을 안내했다.

광주본부는 광주·전북·제주지역의 군인, 공무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기자 hkk42@mdiboo.com

광주·전남

미사건적도 사랑방 하나면 돼!

소형이사부터
포장/보관이사까지!

① 하단 QR코드 스캔 후
② 사랑방 이사 메인에서
③ ‘견적상담 바로가기’ 클릭
URL : 24.sarangbang.com

무료 견적 상담

사랑방 입점 우수업체

송산익스프레스

080)824-0024

북구 연양로 63-1 (양신동)

청년일자리익스프레스

062)953-0524

광주 동평로 300번길 15 (광평동, 고슬라 휴먼시티)

해피데이트랜스

010)3627-4024

서구 풍서로 290번길 20 (세하동)

솔밭익스프레스

062)653-2404

남구 회서로 21번길 3 (주월동)

킹콩익스프레스

062)527-0112

북구 번릉로 57 (용봉동, 용봉동 유강하이리빌딩)

새한익스프레스

062)269-2222

북구 동문대로 452 (장동동)

365익스프레스

080)544-2400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86-7 (일곡동)

현대익스프레스-기아운수

062)265-5500

북구 설죽로 370번길 10 (도치동)

OK익스프레스

080)502-1234

북구 실죽로 370번길 10 (오치동)

태성마스타

010)2330-2482

북구 실죽로 370번길 10 (오치동)

야호익스프레스

010)2274-2424

북구 우치로 311번길 4 (오치동)

혜성익스프레스

062)522-2424

북구 저불로 22 (용봉동)

신세계익스프레스

062)512-1234

북구 능언로 25 (오치동)

거인익스프레스

062)524-1424

북구 문신로 24번길 59 (문흥동)

LG익스프레스

062)572-8900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30 (일곡동)

태평양익스프레스

062)227-2424

북구 양산택지소로 46-1 (본촌동)

평양익스프레스

080)962-1234

북구 일곡마을로 130 (일곡동)



30년 역사 '현대미술 마당', 베니스에 펼쳐낸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창설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30년 역사를 응축한 특별전을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로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4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에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Collateral Event) 중 하나로 선정, 진행돼 눈길을 모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크게 본전시와 병행전시, 국가관(파빌리온)으로 운영되는데 병행전 경우 공모 과정을 거쳐 베니스비엔날레 측이 선정해 야만 진행된다. 이번 전시 예술감독은 재단 전시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시팀이다. 전시 성사를 위해 기획서부터 전시 구성까지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축적된 아카이브 자료들과 소장품은 물론이고 소장품의 의미를 확장하는 작품들이 공명하며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해온 다양성과 포용성을 풀어낸다. 전시는 역사를 선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광주 정신을 조망함과 동시에 광주비엔날레의 동시대적 가치를 정립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연대기, 광주비엔날레 소장품과 이를 확장하는 작품, 소장품 등 아카이브 등 크게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은 역대 전시 포스터를 포함해 역대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 일기, 전시 주제, 참여 작가 등을 통해 개괄적인 역사와 주요한 변화를 한눈에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인터뷰 형식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발자취와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다큐멘터리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시선'을 선보인다.

두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소장품과 그 의미를 확장하는 세 명의 한국 여성 작가 작품으로 꾸려진다.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방향을 집약한 소장품 중 백남준의 '고인돌'과 크초(Kcho) 화운동기록관의 소장 유물이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전이 펼쳐질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 선정

역대 감독·주제 등 연대기에

지향점 응축한 소장품 바탕

새로운 해석으로 의미 확산



백남준 작 '고인돌(Dolmen)', 1995. 광주비엔날레 제공

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를 만나본다. 두 작품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이다. '고인돌'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공동체를 기리는 의도로 제작됐으며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쿠바에서 보트로 탈출했던 난민공동체의 삶을 은유하는 작품으로 이들의 간박하고 위태로운 삶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두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의미를 확장한다. 이를 작품과 어우러지는 작품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김실비, 김아영, 전소정 세 명의 여성작가의 작업이다. 이들의 작품은 신작을 포함해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백남준, 크초 작품과 어우러져 이들이 형성하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재창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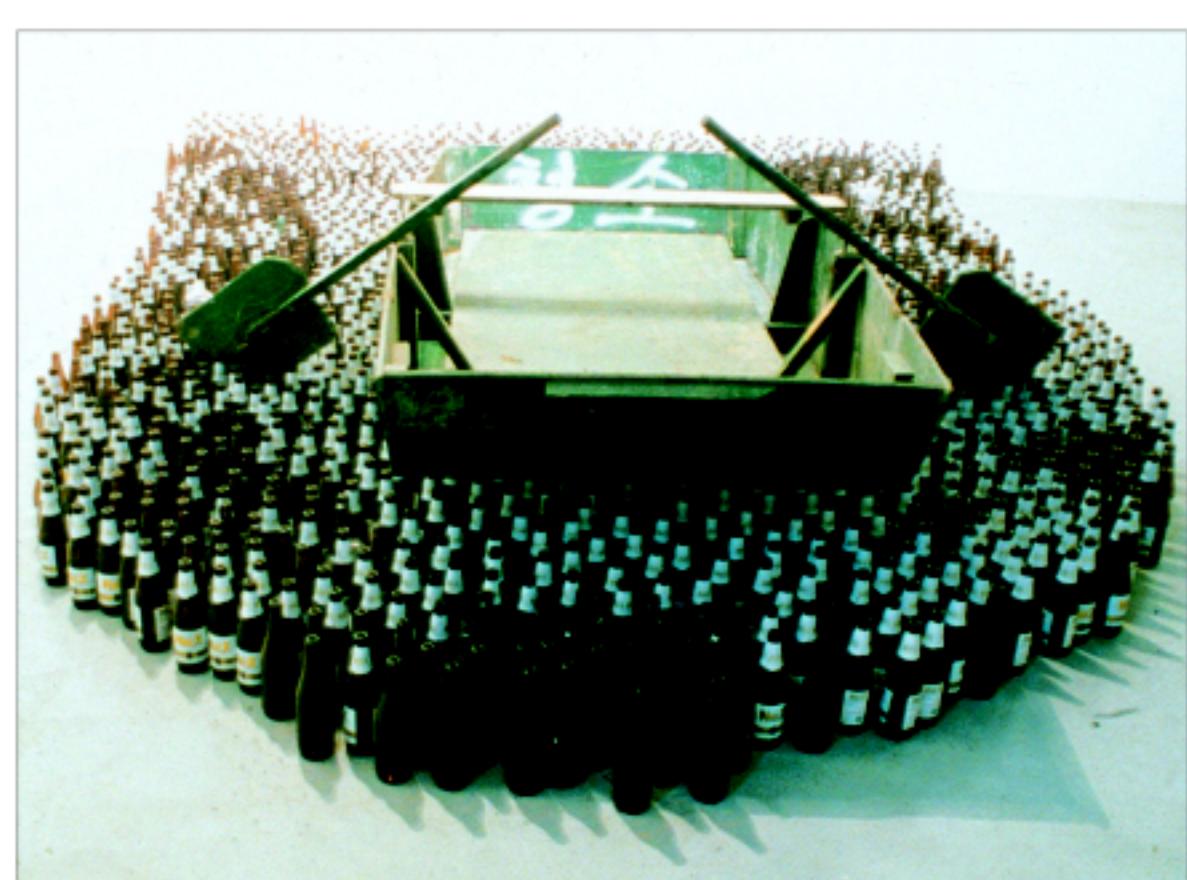
이와 함께 광주 정신을 보여주는 '양은 함지박'도 전시된다. 80년 5월 당시 광주 어머니들이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만든 주먹밥을 담았던 함지박으로 광주 공동체를 상징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소장 유물이다.

세 번째 섹션은 아카이브 섹션이다. 광주비엔날레 행보를 담은 전시 포스터, 티켓, 리플릿, 전시 도면 등 역사적 실물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 등을 선보인다.

전시가 이뤄지는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는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이 밀집한 자르디니 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공간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국제 미술 인사뿐만 아니라 예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잔치를 열기 위한 장소가 마당이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또한 30년 역사 동안 시각 예술을 통해 인류 사회 담론의 장이자 다양한 화두가 발화되는 장으로서 '마당'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베니스비엔날레 기간과 연계해 베니스 현지에 마련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다시 한번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의미를 되새기고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연대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 생성되는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hji@mdibbo.com



크조 작 '잊어버리기 위하여(To Forget)', 1995. 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문화재단 몸집 줄인다… “7% 감원 예정”

인력 감원 등 경영혁신 예고 ‘수장 공백’ 직대 체제로 조직개편

광주문화재단이 인력을 감원하는 등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설립 14년 차를 맞아 관성적 사업 운영을 탈피하고 국정·시정철학을 조화롭게 담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6일 제66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기존 1실·3분부·1센터·11개 팀을 3실(기획경영실, 예술지원실, 시민문화실)·1단(문화공간운영단)·9개 팀으로 조직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7%를 감원하는 경영혁신 조치라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퇴직자가 발생해도 인력 충원을 하지 않거나, 고용 형태에 따라 계약 만료 시 연장을 하지 않는 식으로 감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재단의 인력 규모는 일반직을 비롯해 임명직(대표이사·공석),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을 포함해 96명이었다. 예산은 350억 원, 기금은 100억 원 규모였다.

재단은 올해 ‘시민이 있는 문화 예술 가치를 실현하는 광주문화재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을 미션으



광주문화재단 전경.

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 서비스 제공 ▲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함께 참여하는 예술적인 미래 구상 ▲ 함께 실현하는 문화행정 전문조직 운영 등 4대 목표로 세웠다.

목표 이행을 위한 12대 전략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혜력 넘치는 문화예술의 일상화, 모든 세대·계층을 위한 예술 돌봄 실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현장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한다.

‘함께 참여하는 예술적인 미래 구상’을 위해 미래 가치 창출 거버넌스 구축, 광주특화 문화자원 브랜딩, 문화공동체 및 인력을 양성한다.

‘함께 실현하는 문화행정 전문조직 운영’을 위해 ESG경영 선도 및 정책기능 강화,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경영효율화 이행 및 실현하는 전문조직을 운영한다.

재단은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과 미션, 전략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표이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수장 공백 리스크’를 안고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일각에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2차례 대표직 공개 모집에나섰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3차 공모는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김요성 대표이사 직무대행(광주시 문화체육 실장)은 “예술활동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예술씨앗이 광주 곳곳에 뿌려지길 시민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씨앗 뿌리는 역할(Seeding)’에 제대로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계획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 또 보완돼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redcow@mdibbo.com

ACC, 창제작 콘텐츠 협력 전시기관 모집

국내외 문화기관 대상 1~16일 접수

어아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전시 시설을 갖춘 국내·외 모든 기관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12개 안팎의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시할 작품은 선정된 기관의 전시 환경 및 선호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ACC재단은 운송, 설치를 포함한 작품을 제공하

되, 컨템포러리 분야는 재제작·대여 비용 100%, 미디어아트 분야는 70~80%를 지원한다.

선정된 전시기관은 전시장 조성과 전시 운영 및 홍보를 담당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또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 우수한 창제작 콘텐츠 유통을 계기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redcow@mdibbo.com

‘길위에 김대중’ 릴레이 응원 상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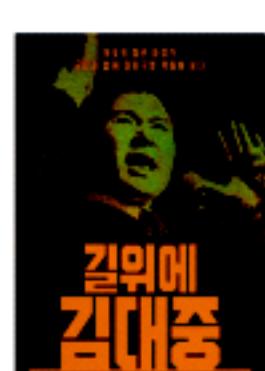
오늘 광주독립영화관… 전석 매진 감독과의 대화, 누구나 참석 가능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독립영화 화제작 ‘길 위에 김대중’ 릴레이 응원 상영회를 1일 오후 7시 1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길위에 김대중’ 제작사인 명필름이 기획한 ‘릴레이 응원 상영회’(진모영 감독이 쓴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을 다룬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더 많은 청년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 등으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해 온 진모영 감독이 청년들에게 무료로 영화티켓을 제공하는 것. 진모영은 한국영화사에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흥행할 수 있다는

변곡점을 만들어 낸 감독으로 광주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상영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인디스페이스, 예무시네마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상영회 좌석은 전석 매진돼 현재 예매는 불가능하지만 감독과의 대화(GV)는 별도 예매 없이 참석 가능하다. ‘길위에 김대중’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을 이어간다.

이관우 기자 redcow@mdibbo.com

광주여성가족재단, 사랑의 온도탑 챌린지 동참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랑의 온도 성금 모금 동참 챌린지에 최근 참여하며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챌린지는 성금 모금 챌린지 진행을 통해 사람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며 광주광역시의 유관기관을 지목하는 릴레이 행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모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50억 7천만원이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한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문제 대응 지원,



안전한 일상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사용된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redcow@mdibbo.com

순정한 아웃사이더들이 펼쳐내는 꿈

박이수 장편소설 '시작된 일' 출간

중년의 고독하고도 찬란한 방황
공통된 유년의 기억 공유 인물들
불확실한 이들 마음에 작은 위로



소설은 인물을 통해 엮어내는 서사다. 그 인물군상들은 현실의 어떤 이들과도 닮아 있기도 하다.

소설가 박이수씨가 장편 '시작된 일' (걷는사람)을 펴냈다.

박이수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예술을 동경하는 인물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난난한 여정을 두루 살피며 꿈꾸는 중년의 고독하고도 찬란한 방황을 하드보일드하게 파고든다. 그가 창조한 이 세계엔 소설가를 꿈꾸는 지성, 시인이 되고 싶은 정선, 가수라는 꿈을 위해 어떠한 무대도 마다하지 않는 혜영이 있다. 소설은 '등대집'이라는 공통된 유년의 기억을 공유하는 인물들이 중년이 된 지금 꿈을 향해 힘껏 달려 나가는 모습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날카로운 문

장과 내밀한 서사를 통해 질긴 현실을 타파하려는 인물들의 갈망과 갈증까지도 녹여낸다.

소설은 지성이 운영하는 공간 도래옥을 아지트로 삼은 '고마리' 회원들이 때난 뒤의 장면으로부터 출발한다.

정선과 혜영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오류십 대지망생들로 구성된 고마리 회원들은 늙고 초라해졌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주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자신의 꿈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책임지려는 이들로 가득한 이곳에서만큼은 자기 작품을 떳떳하게 선보이고 명예롭게 상을 받는다. 꿈을 가졌다는데 이유로 "어찌다 우린 이렇게 됐을까?"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세계에 쉽게 지지 않으려는 인물들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풍경이 아름답다. 그러니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대의 뜨겁고 다급한 사회적 징후"까지도 천착해내는 이 작

가를 신뢰하지 않을 길이 있을까.

"고마리 회원들의 시상식은 의식을 치르는 당사자에게 회원 일동이 회원의 지망 분야를 인정해 주자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말하자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설가. 어느 분야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게 바로 시인이나 소설가 또는 가수라는 응원의 메시지 전달이었다."(지성이 중 일부)

덧없이 계절은 변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모두 떠나갔지만 그 후로도 삶은 지속되듯이 박이수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어떤 일들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일이라는 깃바심한 진리를 온몸으로 체감한다.

메아리가 되돌아오듯,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야마는 이상하고 신비한 설리는 이곳에서 환하고 슬픈 우연으로 발행하며, 박이수의 소설은 삶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절망을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물의 삶을 묘사한다.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애매한 모양새를 가진 고유한 삶들이 유연하게 얹히고 헤어지며 풍광은 꿈을 향한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는

과정으로 기능함으로써 불확실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안긴다.

문종필 문학평론가는 "박이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장자리에 놓인 아웃사이더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끝까지 자신의 꿈과 길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핵심을 짚어낸다. 동시에 이 소설이 쓰인 당위가 "이들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의 모습을 잘 작가가 녹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어쩌면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을지 모르는 일, 골목의 아웃사이더들이 모여 각자의 최선을 다해 서로의 결을 보듬는 이야기가 이곳에 있다. 깜깜한 골목을 밝히는 불빛처럼, 어두운 현실에서 조차 가장 자기다운 자그마한 빛을 내는 인물들과 그 곁에 서면 오롯이 감지되는 은은한 온기를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이다.

박이수 작가는 나주에서 태어나 지난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컨테이너'가 당선,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부표의 전설', '혼자라면' 등을 냈다.

최민석기자 cms20@mdiboo.com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지원

문화재청, 성황제·당산제·동제 등

문화재청이 올해 성황제·당산제·동제 등 지역의 자연유산에서 이뤄지는 민속행사 69건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오랜 세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 온 마을 고유의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을 대표들에게 '당산나무 할아버지' 명예 활동 자격을 부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속행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2월5일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저술동 제3곳의 민속행사 ▲설 연휴기간,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행단제(2월10일) 등 6곳 ▲정월대보름 전후, 울진 후정리 향나무 용왕신 동제(2월23일) 등 24곳 ▲원성 성남리 성황림 성황제(5월14일, 10월11일)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복신제(11월1일)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69건의 민속행사가 연중 개최된다.

뉴스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시동

6천년 지속 그림·문자 독보적 가치

신석기인들의 고래사냥 그림 등이 담긴 '반구천 암각화'(사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발을 뗐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반구천의 암각화'를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 지난해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유산이다. 약 6천년 동안 지속된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당대의 암각 제작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 증거로, 가치가 높다.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담아낸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한반도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하고 있다.

등재신청서 검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2025년까지 전문 심사 기구인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평가를 실시한다.

뉴스

'드라큘라' 정선아 "무대에서 반짝반짝한 선배되고 싶어"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 수상
룰모델은 35년차 뮤지컬배우 최정원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아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전보다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8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은 22년 차 뮤지컬 배우 정선아(40)에게 특별한 보상이자 선물이었다.

정선아는 고등학생 시절인 2002년 '렌트'의 '미미'로 데뷔, 혜성같은 신인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여년간 '드림걸즈', '지킬 앤 하이드', '아이다', '에비타', '드라큘라', '광화문연기', '위키드', '킹카부츠', '데스노트', '안나카레니나', '보디가드' 등 수많은 뮤지컬에서 활약, 파워풀한 생명력과 존재감으로 '캐릭터 장인'으로 자리잡았다.

그런 그에게도 임신 후 복귀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임신과 출산으로 몸무게가 80kg까지 쪘고, 다시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해냈다. 복귀작 '아프텐'에서 '엘리자베스 캐릭터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냈고, 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다.

지난 30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정선아를 만났다. '드라큘라' 초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미나'로 돌아온 그녀는 연기와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정말 많이 웃었어요. 임신·출산으로 인한 신체변화는 처음 겪어봤잖아요. 임신 상태에서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운동도 많이 했지만 쉽지 않았죠.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질도 못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땀복을 입고 러닝머신을 하고, 낫토·연두부·계란만 먹었죠. 복귀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복귀 후에도 피나는 노력을 이어갔다. "대사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전체 연습이 끝나면 따로 공간을 마련해 밤새 연습을 했죠. 가족과 매니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려한 뮤지컬 배우지만 집에서는 엄마다.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어요. 내 목소리 관리, 내 컨디션, 나, 나, 나였죠. 쉴 때는 쭉 자고 일어나 느지막히 일어나 운동을 가곤 했어요. 지금은 쉬는 날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요. 키즈 카페도 가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복귀 후 정선아는 더 깊고, 유연한 연기를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그의座右銘처럼, 그녀의 연기는 점점 더 반짝반짝해지고 있다. 그녀의 노력은 이미 세상을 놀라게 했고,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는 더욱 빛나길 기대된다.



뉴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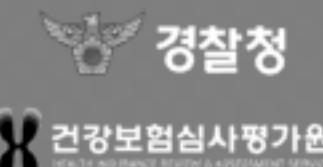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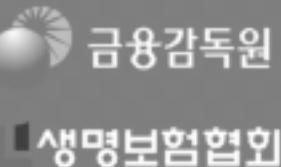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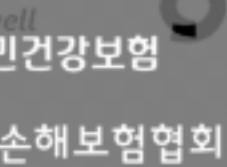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한국보험협회
전국민 경제부담



조선대병원, 전문약사 시험 5명 전원합격

장혜영·박선희·김소영·오재기·김혜미 각분야 수준 높은 약제서비스 가능

조선대학교병원은 국가 공인 법제화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된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5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약사는 장기 이식, 노인, 정맥 영양 등 해당 분야 약물요법에 대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 약사를 뜻한다.

이번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9개 과목(내

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 영양·장기 이식·종양·증환자)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병원 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험 응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의료기관 내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이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다.

조선대병원 약제부에서는 장기 이식(장혜영 약제부장), 노인(박선희 약무팀장), 정맥 영양(김소영 약사), 종양(오재기 약사), 감염(김혜미 약사) 5개 분야에서 전문약사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제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문적인 맞춤형 약물 요법과 복약 상담 등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장혜영 약제부장은 "지원한 5명이 모두 합격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전문약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는 약사 총 481명이 합격했다. 전문약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는 3월 18일 이전에 교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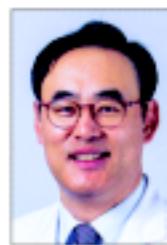
이정민기자 lm7da@mdilbo.com

광주 서강고 졸업 주웅 교수, 이대서울병원장 임명

광주 출신인 주웅(52·사진)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이대서울병원장으로 임명됐다.

30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주 교수는 다음달 1일자로 서울 이대서울병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간이다.

광주 서강고등학교 졸업한 주 신임 병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거쳐 산부인과 전공으로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또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화의료원 흉보실장,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 센터장, 이대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이대서울병원 스마트의료센터장,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정민기자 lm7da@mdilbo.com

차상희 캠코 광주전남본부장 "지역경제 활력 제고"

오늘 취임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면서 "지역 청소년·아동센터 등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출생지인 차 본부장은 전남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경영관리 석사를, 전북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김윤섭 한영피엔에스 회장, 지스트 GTMBA 총동문회장 취임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김윤섭 회장이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7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대학 오룡관에서 정용화 대외부총장, 제6대 총동문회장인 주효진 나승종 회장, GIST발전재단 김해영 이사장 및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TMBA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이 2012년 설립한 한영피엔에스는 철강 가공 및 금형 제조 등 금속 스프링 제조업체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도어(문), 얼음분쇄기, 스프링 등 백색가전 부품을 주로 제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동안 신규 사업 등을 통해 GTMBA 총동문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의 업적들을 더욱 공고히 계승 발전시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동문회로 가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m7da@mdilbo.com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 "지역통계 활성화에 앞장"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통계를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현장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호남·제주권 주요 정책 현안 관련 특화 통계를 산 충 분석·제공해 지역 통계 혁신 및 씽크탱크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에게는 "구호나 말이 아닌 행동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한국거버넌스학회 내달 2일 송원대서 동계학술대회

김용민 송원대 교수 32대 학회장 취임식도

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용민·송원대 교수·사진)는 2월 2일 송원대학교에서 동계학술대회와 김용민 교수의 제31대 한국거버넌스학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 지역과 함께 세계로" 주제로 광주전남의 13개 기관이 함께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늘날 인공지능·자동화·빅데이터 기술분야의 혁명적 변화와 기후변화·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관리 등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과 지역의 대처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장으로 개최된다.

우선 제 1분야에서 박기관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지방시대의 비전과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성과를 논의하고 분권형 국가추진과제와 시도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행정혁신과 주민자치 분과,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 분과, 지산지소와 디지털소상공인 정책 분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역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 노후준비서비스와 ODA, 행복한 돌봄도시 광주 미래를 그리다. 또 지역특성

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노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인구감소와 사회갈등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국정관리에 관한 공공담론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전국규모의 학술단체다.

김용민 회장은 "학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행정을 중심으로 한 인근학문 간의 협업을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의 국정관리에 이론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각 계 각종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써 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m7da@mdilbo.com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증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신고=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국가가 보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기입 안내=대상자 만 55세 이상(부부중 1인),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기초연금수급자는 조건 충족 시 우대지급. 상담 062-370-5760 www.hf.go.kr 수정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062-370-5742(내선 5742)

▲사랑애돌봄사업단=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 사업 진행, 대상 서구 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시구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이 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무등 게시판 Tel:606 7700 e-mail: mdilbo@mdilbo.com Fax: 383 8765 mdilbo7@daum.net

보낼곳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SR8미디어빌딩 5층) 무등일보 생활정보담당자 알

결혼 ▲정한성(신진화스너공업㈜ 대표), 오병란씨 장남 진북(신진화스너공업㈜ 이사) 군, 임광현(KBC광주방송 경영본부장 이사), 오지은씨 장녀 주연 양=2월 17일(토) 오후 12시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홀

안내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학대피해 아동 일시 보호시설 '행복센터' 운영 등, 아동학대 상담 신고전화 112 010-7777-323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원용품무료지원. 062-369-4009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상담=매주 월~금 오후 5시까지, 신용불량자 등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무료상담 가능 062-226-9001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서비스(주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무료제공·만

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062-233-0468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4대중독(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무료 상담 및 교육 062-222-4555, 222-5666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을건강 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중독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무료 상담. 062-413-1195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236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13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대상 여성부지원·성폭력상담기관. 응급진료와 상담, 치료, 자문번호와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제공. 062-232-1375

▲인애시니어 W-센터=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1~3등급, 시설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장소는 봉선동 무등 3차 APT 맞은편) 062-654-7777

▲모집 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 주치의, 문의 봉사광주교육원 016-521-3999, 010-4642-4779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년증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 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내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희망발전소 010-2626-5018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 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어린이 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수채화 취미반=이젤 캔버스 무료 제공, 증진화 지도, 커피·음료·휴게실 제공, 전시 무료·야외 스케치, 대관·열린쉼터 무료, 열린미술관·열린쉼터(광주광역시 동구 종양로 196번길 8) 가톨릭센터 뒷길, 010-5805-288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오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 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개인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아무르합창단원=모집인원 남·여 00명, 자격 20세 이상, 연습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광주제일교회.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광주시 북구 용봉동 행복드림노인주간보호센터 522-1296, 010-3944-1296

▲광산구립합창단 단원=성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거나 주소지가 광산구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광산구 관내에 직장이나 사업체를 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응시원서 광산구청 홈페이지 문의 광산구문화예술과 960-8253

▲사회공헌활동 기부행동봉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김보곤 디케이 대표, 광주 170호 아너소사이어티

“나눔 통해 진정한 행복·감동 느껴”

김보곤 디케이 대표이사가 광주 170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31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너 소사이어티 170호 회원으로 김보곤 디케이 대표이사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층 나눔문화관에서 김보곤 대표이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아너 99호인 조덕선 사랑방미디어그룹 회장, 161호인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장인성 디케이주식회사 사장 등 외빈이 참석해 김보곤 대표이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축하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안실단, 제조업 자율 안전협의체 뱌대식
사망사고 예방 사업·안전문화 확산 활동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은 제조업 자율 안전협의체 뱌대식과 함께 2024년도 사망사고 예방 사업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안실단은 노·사·민·정 31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로서,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도 사업장, 협의체, 직능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장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스스로 매월 4일 안전일 터 조성의 날이 활성화되도록 매뉴얼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 붐 조성을 위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실단 활동의 첫 출발점으로서 지난 30일 오후 2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제조업 자율 안전협의체 뱌대식이 개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과 협의체 회원사 및 협력사 일동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5개 분과로 구성돼 사업장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무분과별 베스트 퍼트너 육성 등 산업 재해 예방활동과 안전관리 역량 교육 등 안전관리 역량 향상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boo.com

개인 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에서는 2010년 1호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70번째 회원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김보곤 디케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돕기 후원금 1천만 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기부했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후원금 1천만 원 기부, 광주교도소 수용자 500명 생수 6천900병 지원,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청정기 500대 기탁 등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 기업인으로서 상생 실천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보곤 대표이사는 “나눔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감동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의미를 알리고 나눔 실천에 모범이 되는 기업 그리고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99호 아너인 조덕선(왼쪽 두번째) 사랑방미디어그룹 회장, 아너 161호인 조성은(오른쪽 두번째) 무진기연 대표 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곤(왼쪽 세번째) 디케이 대표이사 광주 170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열었다.

한편, 한편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디케이 주식회사는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부품과 정밀 프레스 금형,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스마트

에어가전 제품을 제작 생산해 내수 및 해외 수출로 지난해 1천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지역의 중소 강소기업이다. 김승희기자 wlog@mdiboo.com

김영록 전남지사, 이임하는 中 총영사에 감사패… “우호 증진”

장청강 총영사 3년6개월 임기 마치고 귀국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3년6개월 임기를 마치고 2월 초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청강(張承剛) 주(駐) 광주 중국총영사에게 도지사 명의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총영사는 2020년 7월 부임 이후 코로나19와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시기 등을 지내면서 전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경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공연하고 한중 우호 교류 증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남이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울 때 방역 지원과 함께 수해의연금 2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크고 작은 도움을 줬다.

또 전남도가 주최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



제수목비엔날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각종 축제에 직접 참여, 전남도와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전남도는 앞서 2022년 12월 장 총영사를 명예 도민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장 총영사께서 그동안 전남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명예도민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rsh@mdiboo.com

광주 세무사회·국세동우회 ‘사랑의 도시락’ 배달

쌀 18포대·성금 200만 원 전달도

광주지방세무사회와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지난 30일 설 명절을 맞아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배달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과 서석진·이인제 청년세무사, 광주지방국세동우회 김기호 회장과 주경석·박효주 고문 등 회원 20여명은 이날 광주 남구 나눔의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사랑의식당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350여명의 결식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쌀 20kg 들이 18포대와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설 명절이 되도록 위로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사회적 약

자인 중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과 늘 함께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철현기자 repo333@mdiboo.com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1일 목요일 (음력 12월 22일)

쥐	36년생 이길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라. 48년생 내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육심마지 말라. 60년생 나의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으리라. 72년생 사업화장의 좋은 기회가 있음이라. 84년생 아직은 이르니 때를 기다리라. 96년생 이성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으리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용	40년생 친구와의 우정 번지 말라. 52년생 나의 노력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64년생 누구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76년생 육심 난다고 덤석 취하지 말라. 88년생 일단 포기하고 물러나서 보라. 00년생 식구들의 의견 충돌로 상심하리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원숭이	44년생 나의 건강에 신호가 오니 주의. 56년생 모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운. 68년생 지금, 가정, 자녀 문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80년생 그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된다. 92년생 마음 먹은 공부가 순조롭게 되는 때. 04년생 그동안 막혔던 일이 해결된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제주도
소	37년생 나의 결백을 상대방이 안 믿는다. 49년생 내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라. 61년생 근심했던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방비하라. 73년생 구차하게 내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85년생 이제야 주위에서 나를 알아 준다. 97년생 계획대로 밀어부치라. 해결될 것이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뱀	41년생 나의 힘이 필요한 곳에 보태주라. 53년생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65년생 친구는 적이 아니다. 언쟁을 삼가라. 77년생 손해만 보게 되니 동업자와 절대 다투지 말라. 89년생 아직 이르니 따지 말라. 01년생 틀림없이 같은 데가 있을 것이다니 찾아 보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제주	33년생 도움 요청에 상대의 회답이 없다. 45년생 육심은 육심을 낳는 법이다. 5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운이라. 69년생 문서를 취득할 운이 좋음이라. 81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라. 93년생 이성간에 있었던 미묘한 길들이 해소된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제주
호랑이	38년생 친구 일기 곧 나의 일임을 알라. 50년생 금전으로 인한 낭비를 보리니 아까쓰라. 62년생 재산증식이 되는 좋은 운이라. 74년생 부모의 건강을 돌볼 것이다. 86년생 바삐 뛰어보았자 소득이 없는 때라. 98년생 고심해보았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말	42년생 과식과 과음을 삼갈 것이다. 54년생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 66년생 주위사람을 위해 내 능력을 내놓으라. 78년생 어려움을 자녀들과 상의하라. 90년생 직장에서 후배의 도움을 반복된다. 02년생 용서하고 관용을 배풀면 내 사람이 되리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개	34년생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하라. 46년생 회회6면 예상 밖의 소득이 생길 것이다. 58년생 자금이 적기이나 나라도 우선 빼져 나오라. 70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조깅이라도 하라. 82년생 여행 중 병고를 조심해야. 94년생 지금 줄, 은행등자는 불투명.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제주
토끼	39년생 그 일은 될 일이 아니니 물러서라. 51년생 기겼던 육심을 고집히 버리라. 63년생 나의 일이 아니면 참견하지 말라. 75년생 직장 상사의 신임을 받는다. 87년생 그간의 연구 업적이 빛을 본다. 99년생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다.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양	43년생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음을 보여 주라. 55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한숨 쉬지 말라. 67년생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79년생 과식, 과음, 과욕을 삼갈 것이다. 91년생 원수를 용서하면 내 사람이 되리라. 03년생 한발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라. 금전 × 매매 × 예정 □ 직장 ○	제주	35년생 하루 해가 왜 이리도 길단 말인가? 47년생 일부만 보고 전부 보았다고 하지 말라. 59년생 집안 가득 웃음꽃이 피리라. 71년생 사업, 자금 운동 모두 좋으리라. 83년생	

한국은 2일, 호주는 4일 쉬고… 8강 열쇠는 ‘체력’

사우디전 승부차기 접전 주전 피로
역대 전적 백중세… 호주 파워 경계
손흥민·황희찬 등 측면 돌파 기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제는 호주와의 맞대결을 바라본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3일 오전 0시 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31일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 정규 시간 1-1 이후,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올랐다. 8연속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전에서 벡스리 전술을 사용하는 등 상대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후반 1분 암들라 디리프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패색이 짙었으나,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54분 설영우(울산 HD)의 도움을 받은 조규성(미



클린스만 감독이 사우디를 꺾고 8강을 확정지은 뒤 선수들과 포옹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3일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뉴스

트윌란)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리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현우(울산)이 사우디의 세 번째, 네 번째 키커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한국이 8강에 진출했다.

뉴스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지만 한국은 호주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

먼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 호주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와의 16강전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뒀다. 한국과 달리 정규 시간 안에 결실을 맺었다.

한국은 연장전 이후 승부차기까지 가며 많은 체력을 소모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주전급 선수들이 사우디전 승리를 위해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E조 3차전(3-3 무)에서도 로테이션 없이 조 1위를 위해 핵심 선수들을 대거 기용해, 주전급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 호주와 달리 한국은 회복 시간도 부족하다. 한국은 사우디전 이후 단 2일의 휴식과 준비 시간을 가진 뒤 다시 호주전을 치른다.

반면 호주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회복 시간을 확보했다. 사우디전 준비에 집중한 한국과 달리, 한국과 사우디전을 보며 미리 상대 분석까지 할 수 있을 터다.

그레이厄 아널드 호주 감독도 인도네시아전

이후 "우리가 (한국보다) 이를 더 쉽다는 점은 크다"며 체력 및 컨디션 관리 부분에서 자신들이 훨씬 우위를 점했다고 깊은 바 있다.

한국과 호주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28전 8승 11무 9패로 백중세다. 한국이 1승 밀린다. 2010년대로 좁혀 계산해도 2승 3무 2패로 팽팽하다.

깊어야 할 복수도 명확한 상대다.

한국은 지난 2015 호주 아시안컵 당시 결승전에서 호주를 만나 연장 접전 끝에 1-2로 패배, 준우승에 그친 바 있다.

당시 호주를 이끌었던 사령탑이 현재 '한국 주장' 손흥민의 소속팀 스승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기묘한 인연이 얹혀 있기도 하다.

호주는 좋은 신장과 체격 등을 활용한 파워 축구를 구사한다. 하지만 한국은 김민재, 정승현(울산) 등 피지컬이 좋은 수비진을 보유해 크게 밀리지 않는다. 상대 수비진과의 경합에서도 조성, 오현규(셀틱) 등 몸싸움에 능한 공격진이 있다.

또 상대적으로 발이 느린 호주를 공략할 수 있는 손흥민, 황희찬(울버햄튼), 양현준(셀틱) 등 발빠른 측면 자원들도 있어, 전력상 다음 라운드 진출이 아주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순천필마트레이닝센터
유도팀 땀방울로 ‘후끈’

전국 35개팀… 내일까지 합동훈련

순천필마트레이닝센터가 국내 우수유도팀 선수들의 굳은 땀방울로 후끈 달아올랐다.

전남유도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국내 유도팀들을 초청해 2주간 동계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유도회와 순천시유도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동계합동훈련은 초등, 중등, 고등 학생부, 대학부, 일반부를 통하여 전남에서 10개팀 등 전국 35개 팀에서 유도선수 35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순천필마트레이닝센터가 자랑하는 300평 규모의 최신시설 유도장과 170평의 웨이트레이닝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2024년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합동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최신식 경기장과 다양한 선수들과 교류를 통해 많이 배워간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호 전남유도회 전무이사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2024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혁기자 leepoerter5125@mdibo.com

김종국·장정석, 구속 면했다

"방어권 보장 필요"… 영장 기각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A카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란히 출석했다.

유창훈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혁기자 leepoerter5125@mdibo.com·뉴시스

탁구 18세 기대주 오준성

선배 이상수·장우진 격파

WTT 고아 2024 男 단식 8강 기염

한국 탁구 차세대 주자인 오준성(18·미래에셋 증권·사진)이 최근 열린 국제 대회에서 대표팀 선배인 이상수(34·삼성생명)와 장우진(29)을 모두 꺾은 이변을 일으켰다.

오준성은 지난주 인도 고아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콘텐더 고아 2024' 남자 단식에서 대표팀 선배들을 차례로 이겼다.

32강에서 베테랑 이상수를 만난 오준성은 게임 스코어 3-0(11-9 11-6 11-9)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상수와 WTT 주관 대회에서 치른 첫 맞대결에서 오준성은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거뒀다.

이어진 16강 상대는 한국 최상위 랭커 장우진이었다. 세계 14위인 장우진을 만난 오준성은 3-2(11-8 13-11 7-11 11-9 12-10)로 풀게임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8강에 오른 오준성은 세계 26위 파트리 프란치스카(독일)와 접전 끝에 2-3(9-11 9-11 12-10 11-3 9-11)으로 제 탈락했다.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랭킹 포인트 105점을 챙긴 오준성은 생애 처음으로 남자 단식 세계 랭킹 50위권에 진입했다.

이재혁기자 leepoerter5125@mdibo.com·뉴시스



31일(한국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승부차기에서 한국 조현우가 사우디 암둘라흐만 가레브의 골을 막아내고 있다.

뉴스

사우디전 승부차기 승리, 조현우-쾨프케 호흡 빛났다

현역 시절 명수문장 준비 철저
상호 신뢰·자신감 더해 승부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클린스만호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다. 승부차기 승리 비결은 철저한 준비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3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을 1-1로 비긴 뒤 연

장전을 거쳐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한국과 사우디 모두 2번째 키커까지 성공했고 3번째부터 희비가 같았다. 사우디의 3번째 키커 사미 알나지가 골문 왼쪽을 노렸는데 조현우가 막아냈다. 반면 한국 3번째 키커로 나선 조규성은 골을 넣었다. 한국이 3-2로 앞섰다.

조현우의 선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우디 4번째 키커 가리브의 슈팅을 다시 한 번 몸을 날려 선방했다. 한국의 4번째 키커 황희찬 사우디의 골망을 훈들며 마침표를 찍었다.

현역 시절 명수문장이었던 안드레아스 쾨프

케 골키퍼 코치가 조현우를 이끌었다. 쾨프케 코치는 유로1996에서 독일을 우승시켰고 지도자 전향 후에는 올리버 칸, 마누엘 노이어, 테어 슈테겐 등 세계 정상급 골키퍼들을 키웠다. 조현우는 경기 후 "승부차기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골키퍼 코치님께서 제게 믿음이 있었다. 제 판단이 다 옳다고 해주셨다"며 "분석한 대로 판단해서 세이브가 나왔다. 앞으로도 서로 믿으면서 좋은 결과로 계속 끌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승부차기 전부터 자신감이 넘쳤다. 조현우는 "승부차기에 가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승부차기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승부차기까지 간 긴 하루였는데 모든 것을 준비했다"며 "승부차기 훈련을 하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은 승부차기까지 치르며

체력을 소진하고 싶지 않았다는 속내를 털어 놓았다. 그는 "승부차기를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승부차기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빨리 끝내고 다음 경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뉴스

광주FC, 호주 출신 포포비치 영입

공간 커버·1대1 수비 장점
U-22 대표팀 발탁 성장 주목

프로축구 광주FC가 호주 출신 중앙 수비수 포포비치를 영입했다. 광주는 31일 호주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포포비치를 영입. 수비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184cm/83kg의 체격을 지닌 포포비치는 민첩

성을 가지고 있어 공간커버와 일대일 수비가 장점인 중앙 수비수다. 또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수비라인을 이끄는 리더 역할까지 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호주 A리그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포포비치는 South Australia NPL(호주South Australia 주리그)에서 2군팀 일원으로 경기를 뛰며 기량을 닦았고 2018 AFC U17 챔피언십 대표팀에 소집돼 4강전에 출전

하기도 했다.

2021년 정식 프로 무대에 데뷔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22년 A리그 올스타전에도 선발됐다. 이후 2023 AFC Asian Cup 예선 호주 U22 대표팀 발탁되며 차기 국가대표 센터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포포비치는 "광주 축구를 보면서 흥미를 느꼈고 내 축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다"며 "팀에 빨리 합류해서 팬들을 만나 보고 싶다. 또 지난 시즌보다 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재혁기자 leepoerter5125@mdibo.com·뉴스



광주 중앙공원1지구 분양 전환, 원칙이 답이다

■ 무등칼럼



이용규
신문제작국장

정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후분양을 관철한 광주시와 사업자는 당초 1천938만원(3.3㎡당)으로 제시한 분양가를 1천87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비공원시설 증가, 용적률 14.17% 상향으로 아파트 402세대 추가와 공공기여금 250억 원 감면을 받았다. 아파트 시공에서 분양까지 소요될 모든 부담금을 내세워 소기의 전리품을 확실히 챙겼다. 실제 실시계획(2020년 6월) 때보다 대폭 늘고, 사업조정협의회를 야기한 실시계획 변경안과 내용적으로 유사했다.

강 시장, 공공 환수 카드 제시

그런데 사업자는 이런 조건의 후분양을 접고, 다시 선분양 전환을 쟁취하고 있다. 3년 전 최종 협약의 부대조건에 '여전에 따라 선분양 전환이 가능' 한 규정을 내세운다. 논리는 선분양과 후분양 간 3.3㎡당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소비자를 위해 선분양으로 가야한다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공공기여가 5천억원을 넘었고, 앞으로 선분양이 되면 3천억원을 추가한다니 레포토리도 얹혀진다. 토지, 공원조성, 도로 건설 등은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위한 법적의무사항이다. 여론조성자원에서 기부채납까지 공공기여로 확대 해석의 측면이 강하다.

고분양가가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욕구를 꺾어선 안 된다. 다만 사업자 측의 주장만으로는 엣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년 전 수정 협약서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점이다. 후분양 사업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와 역시 사업자가 제공했을 자료에 근거하니 신뢰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가 마땅하다.

중央공원1지구 분양가 전환은 강기정 시장이 제시한 공공환수안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광주시청 출입기자 차단 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선분양 전환을 요청해오면 후분양 협약 당시 제공한 3가지(용적률 인상, 아파트 402채 추가, 공공기여금 250억 감면) 부분의 이익에 대해 협상을 거쳐 모두 공공 환수하겠다고 했다. 줄곧 후분양 방침을 고수해온 시장 책임자가 언론을 통해 전액 환수와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둔 '중앙공원 문제풀이법'을

드러냈다. 강 시장이 기존 협약을 무시하고 특혜 오해를 살 수 있는 '뜨거운 감자'를 투명하게 들통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강 시장이 우려하는 특혜시비를 온전히 해소할지는 의문부호가 예전하다. 강 시장은 분양 방식 전환 조건에 대한 명쾌한 정리 없이 오직 공공환수에만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언급했다. 여기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뭔가라는 근원적 물음에 직면한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통한 공공환수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되는 이 구조체의 참여 인사가 중요할수밖에 없다. 강 시장도 취임후 광주시의 많은 위원회에서 시정에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나 시중의 여론을 들었을 것으로 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쳤다고 해서, 다수 시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될 수 있을지를 미지수다. 사실 지난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도 시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음에도, 4개월전 실시계획 변경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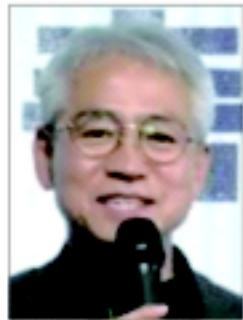
3년전 협상 백지화, 원점서 하나씩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답은 있다. 3년 전 후분양 조건으로 제시된 3가지를 일단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하나씩 사회적 합의로 다시 맞춰가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사업 변경없이 돈으로만 환수액을 따지는 것은 명쾌한 정리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선분양 전환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빛고을중央공원개발이 금융기관에서 선분양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광주시가 항후 분명하게 밝혀야 할 대목이다. 반전의 카드를 뽑은 강 시장으로서는 의도치 않은, 말들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분양가가 앞으로 광주 주택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적정 분양가도 공동 사업자로서 행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민간공원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광주시는 그동안 적극 행정을 폐지 못해 많은 혼란과 불신을 샀다. 이번 이야 말로 행정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은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아파트 협오도시 광주, 공동주택을 혁신하자' 심층기획을 읽고

■ 기고



박홍근
건축사

광주는 억울한가? 아파트는 억울하다.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고,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잘 못 없다. 누구 잘못인가.

광주의 주거형태와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취재, 분석, 핵심정리, 사례조사, 대안 제시까지 한 일련의 기획기사를 보면서 지역의 현주소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류 순(중국 작가, 사회운동가)은 '땅 위에는 원래 길이 없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길이 되는 법'이라고 했다. 하나의 이미지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가짜가 진짜 이미지처럼 바뀔 수도 있다. 길이 잘못 만들어졌어도, 오해가 있어도 지금부터는 중요하다. 아파트를 사랑할 이유가 많음에도 '아파트 협오도시 광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획일적 도시경관과 무등산 조망에 대한 불만에서 표출된 것이 크다.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이 아파트이기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질타다. 도시가 멋졌으면 하는데, 무등산의 훌륭한 자태를 어디에서나 보고 싶은데, 아파트로 인해 짜증나고 막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도시 간 경쟁, 지방 도시 소멸, 수도권 팽창 등 정해진 미래에 광주는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 행정은 업의 본질을 명심해야 한다. 도시는 행정력과 개발회사(디벨로퍼)에 의해 만들어진다. 개발회사는 전문가들을 고용해 최대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대부분 공익은 차차선이다. 도시·건축 정책을 입안하는 광주시는 미래

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유도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 행정의 눈높이는 도시의 경쟁력 수준이다. 행정의 눈높이는 서로 학습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러 사회활동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릴 때 높아진다. 같은 소리만 내는 무리 속에만 있다면 발전은 아득히 멀다.

둘째, 정주 환경과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단지의 성체가 된 문제점을 과감히 해결하고, 보행자를 고려한 상가와 녹지 배치를 통해 주변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장수면 백년 주택이 되도록 가변적 평면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높은 천장고, 다양한 디자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디테일한 실행 방안 구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자.

셋째, 인생은 짧지만, 광주는 길다. 지금부터 하자. 이미 너무 많은 수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늦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희망 없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오늘을 사는 우리는 향유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네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런 도시, 멋진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전남·일신방직공장 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선진사례를 만들 기회다. 광주의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는 죄가 없다. 오직 그것을 잘못 만든 자들을 혐오해야 할 뿐이다.

앞으로도 좋은 길을 만드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사설

광주대학, 신입생 정원 미달 전국 최다… 총체적 위기

2024년 대학 정시모집에서도 비수도권 대학이 학생모집에 열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광주 소재 대학들이 최악을 기록, 위기감을 안기고 있다.

올 정시모집에서 35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중 34개가 지방대이고, 163개 미달학과 중 162개가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정원 미달학과가 가장 많은 곳이 광주 지역 대학으로 드러나 지역 대학들이 총체적 위기국면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같은 비수도권 대학 정원 미달 현상에는 스마트모빌리티나 AI융합대학,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분야 전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원자가 전무한 학과가 5개인데 광주 전남·전남은 이 오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 사설학원이 일반 대 190개교 4천889개 학과(모집단위)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광주는 정원미달 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기록했다. 6개 학교 36개 학과가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전남도 2개교(24학과)지만 학과수로는 전북(4개교 30학과)에 이어 3위다.

비수도권 정원미달 속에 광주 송원대(한국어교육과)와 초당대(치위생학과), 부산

고신대(외식창업학과), 경남 창원시 경남대(군사학과 여성), 충남 논산시 건양대(군사학과 여성) 등 5개 대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다.

심지어 비수도권 대학 정원미달은 첨단 분야 관련 학과들도 비껴가지 못했다. 광주 호남대 AI융합대학(114명 모집에 70명 지원)과 동신대 배터리 공학과(27명 모집에 2명 지원), 경북 구미시 경운대 소프트웨어융합계열(51명 모집에 8명 지원) 등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첨단 학과로 분류되는 곳이지만 정원도 채우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지역 대학의 최악의 정원미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때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자랑했던 광주의 대학교육 현주소는 처참하고 참담하다. 좋은 대학이 한 도시를 살리는 세계 수많은 사례를 보건데 작금의 현실은 참혹하기까지 하다.

인구감소나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클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역 대학들이 교육을 비즈니스로 활용한 대가는 아닌지도 돌아볼 일이다. 대학의 뼈를 깎는 변화가 절실히다.

다른 한편 이같은 심각한 비수도권 정원미달은 인구소멸, 수도권 블랙홀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탈출구 없는 광주·전남 인구유출, 정부가 답해야

지난해 광주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순유출이 20대, 대학교육이나 취업연령 초기에 집중돼 지역 인력양성과 인재유출 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는 전입 인구는 16만3천명, 전출 인구는 17만2천명으로 9천명이 순유출됐다. 전남은 전입 인구 18만4천여 명, 전출 인구 18만5천여 명으로 다소 양호하다.

지난해 광주 순유출률은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광주(-0.6%), 울산(-0.6%), 경남(-0.5%) 순이다. 전년대비 순유입률은 광주(-0.1%p), 전남(-0.1%p) 등이다.

광주·전남 인구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령, 취업연령대의 젊은층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광주 연령대별 순유출률은 9세 이하(0.2%)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유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대(20~29세, -2.2%)가 가장 높다. 전남도는 30대(0.5%)에서 60대 이상(0.2%)까지 순유입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20대(-3.4%)와 10대(-0.7%) 순 유출이 크다.

광주 유출은 일자리와 자연환경, 교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남은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고 직업과 주거환경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인구유출을 자자체의 역량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교육이나 의료, 기업 등을 독식하고 있는 수도권 블랙홀 영향이 너무 크다.

비수도권의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청년들이 머무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더 이상 국토균형발전을 전시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전기차 보조금 논란

재활용할 유기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라, 리튬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NCM 배터리보다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최근 고성능 배터리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말하는 '고성능'의 기준은 배터리 재활용 가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이 반영되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기존보다 적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니켈·코발트·망간 기반 삼원계(NCM) 배터리보다 평균 20~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지난해 2천만원 이상 가격을 낮춘 중국산 모델Y RWD 모델을 국내에 출시해 흥행에 성공했다.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게 주요했다. 모델Y RWD 모델은 지난해 2022년 대비 91.6% 증가한 1만3천885 대가 판매돼 수입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다.

LFP 배터리는 단점도 명확하다. 사용 후

재활용할 유기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라, 리튬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NCM 배터리보다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1리터당 전력량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우위에 있다. NCM 배터리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더 뛰어나다는 의미다.

NCM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의 이번 개편안은 LFP 대신 NCM 배터리 활용을 유도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이유로 '높은 가격대'가 꼽힌다.



돌쇠네 농산물
명절 선물세트

설선물 예약중

미리 사전예약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상주곶감 선물세트
41,900원 ~



명절과일 선물세트 39,900원 부터



LA갈비 선물세트
89,000원 ~



벌집꿀 선물세트
17,000원 ~



호두 타르트 선물세트
18,900원

N 돌쇠네농산물



전화
주문

1811.6562



dolfarmer_official



돌쇠농산물



돌쇠네농산물



카톡상담 QR태그